

DAISHIN START



Technical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Global Market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주간전망] 연준 비둘기의 배신이 아프다

주간증시 전망 ▶ 4p 참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위험지표 12월 금리인상 당시 수준 회복하며 연준위원 코멘트에 일희일비. 특히,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슈. 대표적 중도, 비둘기파 위원들의 변심이기 때문

이번주 29일 엘런 연준의장 연설주목. 4월 금리인상 언급 여부 중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KOSPI 차익실현 심리 확대 예상. 시클리컬주 경계감 확대

2016년 03월 28일 월요일

KOSPI

1983.81 ▼-2.16 (-0.11%)

	3/23	3/24	3/25
종가	1995.12	1985.97	1983.81
등락	-1.69	-9.15	-2.16
등락폭(%)	-0.08	-0.46	-0.11
거래량(백만주)	367	340	462
거래대금(십억원)	3,945	3,749	3,733
시가총액(십억원)	1,222,381	1,216,791	1,215,47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683.2 ▼-3.06 (-0.45%)

	3/23	3/24	3/25
종가	689.39	686.26	683.20
등락	-2.12	-3.13	-3.06
등락폭(%)	-0.31	-0.45	-0.45
거래량(백만주)	706	679	658
거래대금(십억원)	3,574	3,230	3,077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증시일정 ▶ 2p

FMT ▶ 13p

中國周刊 ▶ 15p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 17p

Market Data Snap Shot ▶ 21p

Chart Alarm ▶ 26p

25일 KOSPI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0.11% 하락한 1,983.81에 거래 마감

매매 및 자금동향 ▶ 32p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1	22	23	24	25
美 2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47m, 발표:5.08m) 日 증시휴장(춘분의날)	美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기:0.5%, 발표:0.5%) EZ 3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13.6, 발표:10.6) EZ 3월 마켓 제조업 PMI 잠정 (전기:51.2, 발표:51.4) EZ 3월 마켓 서비스 PMI 잠정 (전기:53.3, 발표:54.0)	美 2월 신규주택매매 (전기:502k, 발표:512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전기:4.2%, 발표:-2.8%) EZ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비 (전기:-8.8, 발표:-9.7)	美 4Q GDP 최종 (전기:1.0%, 발표:1.4%) 美 4Q 개인소비 최종 (전기:2.0%, 발표:2.4%) 日 2월 CPI (신선식품제외) (전기:0.0%, 발표:0.0%) 韓 4Q GDP 확정 (전기:3.0%, 발표:3.0%) 美/EZ 증시휴장(성금요일)
28	29	30	31	4/1
美 2월 개인소비 (전기:0.5%, 예상:0.1%) 美 2월 개인소득 (전기:0.5%, 예상:0.1%) 美 2월 PCE Core (전기:0.3%, 예상:0.2%) EZ,홍콩, 호주 부활절 휴장	美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2.2, 예상:94.0) 韓 3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98.0, 예상:--) 美 1월 케이스실러 주택 (전기:0.8%, 예상:0.7%)	美 3월 ADP 취업자 변동 (전기:214k, 예상:195k) 日 2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3.8%, 예상:-1.7%) 獨 3월 CPI 잠정 (전기:0.0%, 예상:0.1%) EZ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확정 (전기:-9.7,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3월 시카고 PMI 제조업 (전기:47.6, 예상:50.5) 韓 2월 산업생산 (전기:-1.9%, 예상:-1.5%) EZ 3월 CPI (전기:-0.2%, 예상:-0.1%)	美 3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49.5, 예상:50.7) EZ 3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 (전기:51.4, 예상:51.4) 中 3월 Caixin 제조업 PMI (전기:48.0, 예상:48.3) 韓 3월 CPI (전기:1.3%, 예상:1.1%) 韓 3월 수출 (전기:-12.20%, 예상:-11.0%)
4	5	6	7	8
美 2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2.8%, 예상:--) 중국/홍콩 증시 휴장(청명절)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美 3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4, 예상:54.2) EZ 2월 소매판매 (전기:2.0%, 예상:--) EZ 3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 (전기:54, 예상:--) 대만 증시 휴장(청명절)	獨 2월 산업생산 (전기:2.2%, 예상:--) 中 3월 Caixin 서비스업 PMI (전기:51.2,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3월 외환보유고 (전기:\$3202.3b, 예상:--)	中 3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전기:1.8%, 예상:--) 中 3월 사회융자총액 CNY(10 일) (전기:780.2b, 예상:--) 中 3월 M2(10 일) (전기:13.3%, 예상:--) 日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40.1, 예상:--)
11	12	13	14	15
中 3월 CPI (전기:2.3%, 예상:--) 中 3월 PPI (전기:4.9%, 예상:--)	獨 3월 CPI 확정 (전기:--, 예상:--)	美 3월 소매판매 (전기:-0.1%, 예상:--) 美 2월 기업재고 (전기:0.1%, 예상:--) EZ 2월 산업생산 (전기:2.8%, 예상:--) 中 3월 수출 (전기:-25.4%, 예상:--) 中 3월 수입 (전기:-13.8%,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3월 CPI (전기:-0.2%, 예상:--) EZ 3월 CPI 확정 (전기:--, 예상:--)	美 3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 美 4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 예상:--) 中 1Q GDP (전기:6.8%, 예상:--) 中 3월 산업생산 (전기:5.9%, 예상:--) 中 3월 소매판매 (전기:11.1%, 예상:--)
18	19	20	21	22
美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기:58.0, 예상:--) 韓 2월 M2 (전기:1.1%, 예상:--)	EZ 4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10.6, 예상:--)	美 3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08m, 예상:--) 日 3월 수출 (전기:-4.0%, 예상:--) 日 3월 수입 (전기:-14.2%,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기:0.5%, 예상:--) EZ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상 (전기:--, 예상:--)	美 4월 마켓 PMI 제조업 (전기:--, 예상:--) EZ 4월 마켓 PMI 제조업 잠정 (전기:--, 예상:--) EZ 4월 마켓 PMI 서비스업 잠정 (전기:--, 예상:--)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잠정 (전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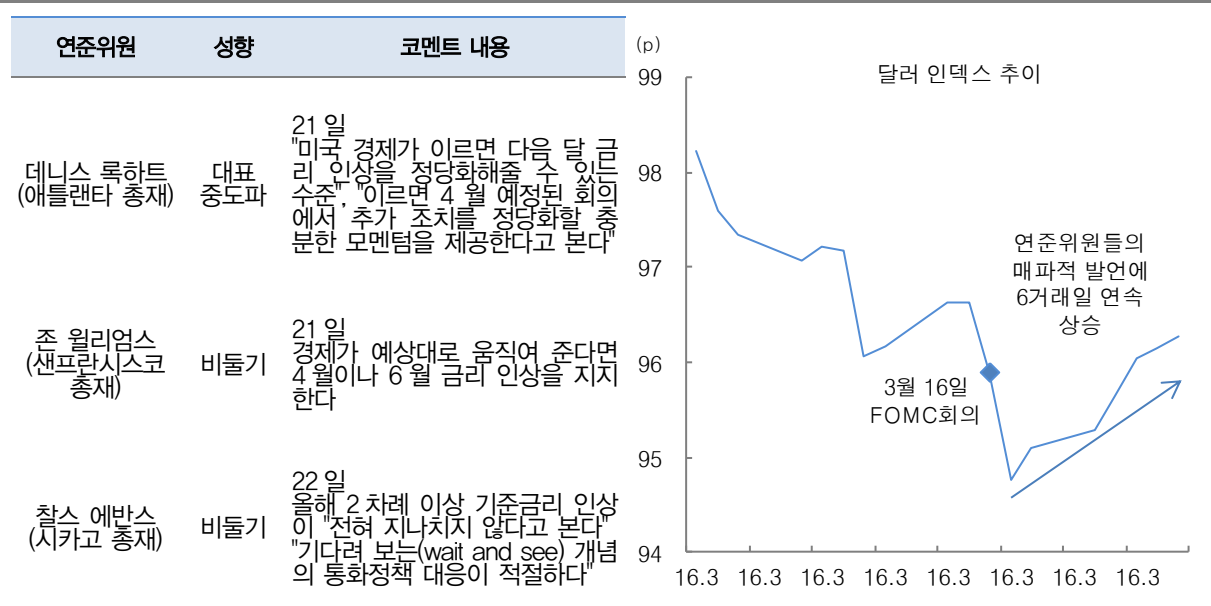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KOSPI 전망

- 유가 급등,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코스피 기술적 반등 가능.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 시점. 정책 신뢰가 가장 강했던 일본에서 정책 실망이 발생. 추가 정책이 나오더라도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 약화는 2~3분기 대표적인 조정요인으로 예상했던 변수. 정책 신뢰 약화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등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코스피 상승 가능성 낮아져
- 반등시 성장주 비중 축소, 수출주(IT, 자동차)와 가치주(Low-Vol)로 포트폴리오 압축

Today's Key Chart

비둘기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금리인상 우려감으로 이어져



- 글로벌 금융시장과 위험지표들이 12월 금리인상 당시 수준 회복하며 연준위원 코멘트에 일희일비함
- 특히,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슈. 대표적 중도, 비둘기파 위원들의 변심이기 때문. 3월 FOMC회의 이후 안도감, 6월 금리인상 컨센서스를 흔드는 트리거가 됨
- 이번주 29일 옐런 연준의장 연설주목. 4월 금리인상 언급 여부 중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후퇴, KOSPI 차익실현 심리 확대 예상. 시클리컬주 경계감 확대

주간 증시 전망

[주간전망] 연준 비둘기의 배신이 아프다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 연준위원 코멘트에 민감한 글로벌 증시.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준위원들의 코멘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3월 FOMC회의 이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일부 후퇴했다. 달러화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고, 글로벌 증시는 주간 수익률 기준 6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처럼 미국 금리인상 이슈, 특히 연준위원들의 코멘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동결 기대감 대부분 반영 : 리스크 지표, 위험자산, 달러화 등 12월 금리인상 당시 수준에 위치. 2) 기대감을 선반영한 글로벌 증시 : 밸류에이션 부담 권역 진입. 3) 여전히 낮은 실적/경기에 대한 신뢰도

※ 비둘기파의 배신이 아플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록하트 총재는 대표적인 중도파로 FOMC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가늠자 역할을 해왔고, 존 윌리엄스는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비둘기파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상반기 중 4월 금리인상 우려감을 자극하며 시점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 연준위원들의 발언.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요인. 29일 옐런 연준의장 연설 주목

이번주에도 윌리엄스 총재와 옐런 연준의장(29일), 에반스 총재(31일)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 옐런 연준의장 연설이 중요하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1) 3월 스탠스 유지 : 비둘기파, 2) 4월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 매파, 3) 원론적 코멘트 : 중립 세가지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개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속에 4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결과를 갖고 3월 FOMC회의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매파적 스탠스 전환은 아니겠지만, 4월 금리인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시장 달래기 위한 코멘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연준위원들의 공통된 매파적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렵다. FOMC회의는 연준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옐런 발언의 비중이 높지만, 시장분위기를 바꿀 정도로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 미국 통화정책 이슈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전망] 차익실현 심리 강화 예상. 시클리컬주 부담 가중

주요 경제지표와 옐런 연준의장/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KOSPI 추가 상승폭, 탄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책 검증, 펀더멘털 모멘텀 확인과 함께 차익실현 심리 확대를 경계해야 할 때로 보인다. 외국인, 기관의 비중과 가격부담을 감안할 때 시클리컬주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준위원 코멘트에 글로벌 금융시장 균열 조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준위원들의 코멘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3월 FOMC회의 이전, 직후까지는 통화정책 기대, 안도감에 시장이 안도랠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일부 후퇴하는 조짐이다. 달러화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글로벌 증시는 주간 수익률 기준 6주 만에 하락반전했다. 국제유가도 다시 40달러를 하회했고,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강세 여파로 약세반전했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위험자산, 신흥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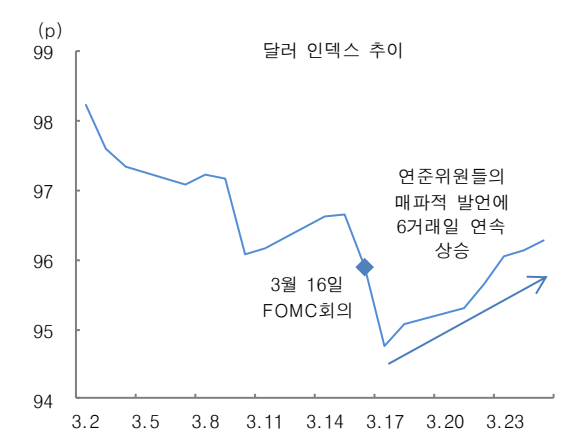
아직 추세변화를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 이후 첫 변화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KOSPI가 중요 분기점이자 라운드 지수대인 2,000선 안착에 실패하고 하락반전했다는 점도 단기 변화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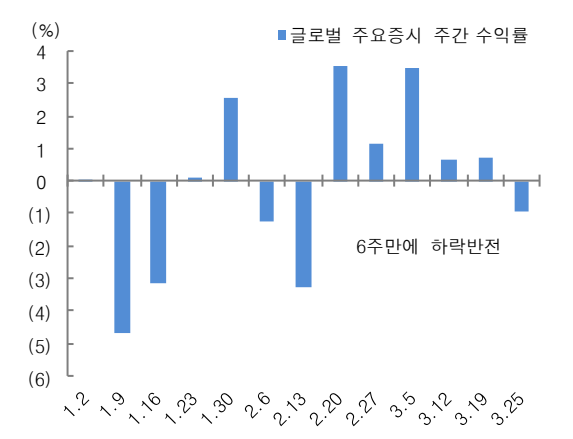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 달러화는 6 거래일 연속 상승 중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증시 6주만에 하락반전(주간 수익률)



주: 글로벌 주요증시는 57개국 기준, 주간 수익률 평균치를 산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금리인상 이슈에 민감한 이유 세가지

이처럼 미국 금리인상 이슈, 연준위원들의 코멘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무엇까? 다양한 이유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가지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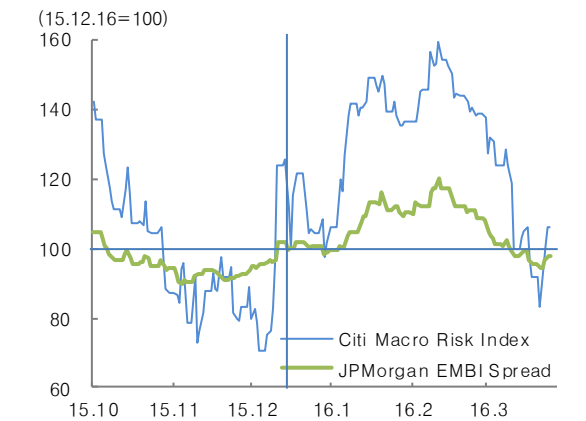
첫번째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의 금리동결 기대감,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년말, 올해 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근간에는 미국 금리인상 단행에 있다.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예상보다 컸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리스크 지표(신용위험, 위험 선호도 등)와 위험자산, 달러화 등 대부분 Index들이 12월 금리인상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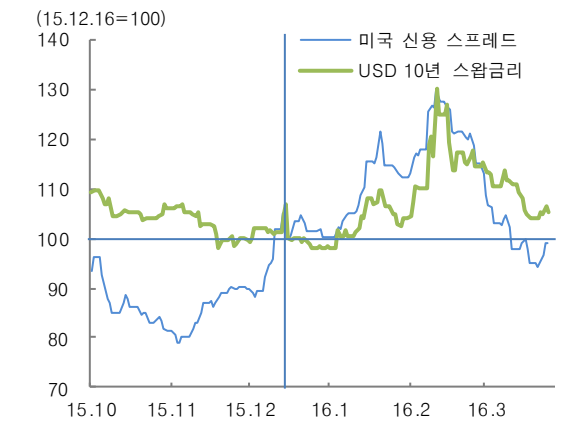
즉, 1월 미국 금리동결을 시작으로 연이은 글로벌 정책 공조(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에 힘입어 글로벌 리스크 지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위험자산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것이다.

그림 3. EMBI Spread 와 Macro Risk Ind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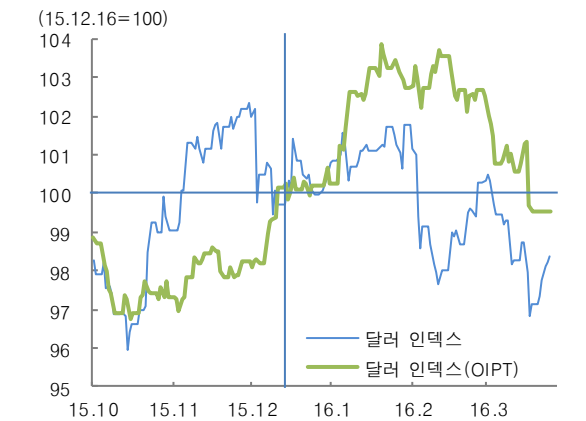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신용스프레드와 달러 스왑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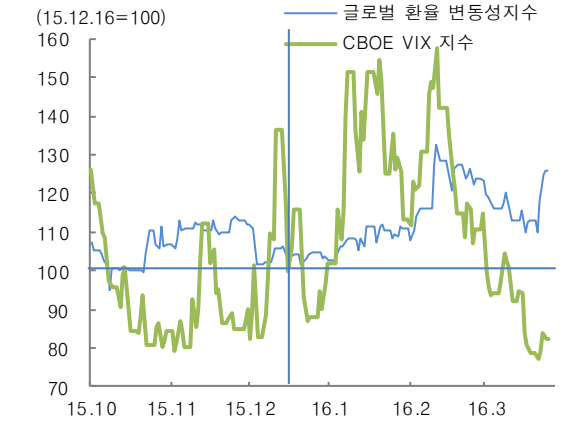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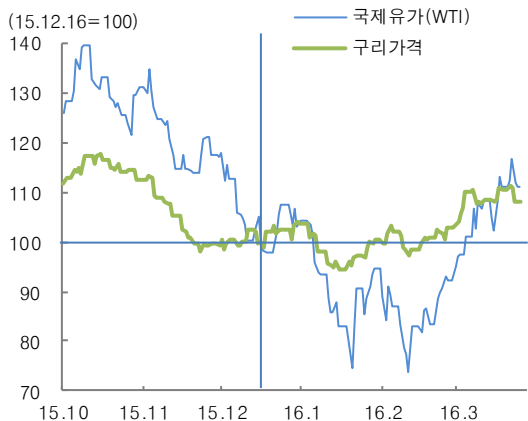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환율, 증시 변동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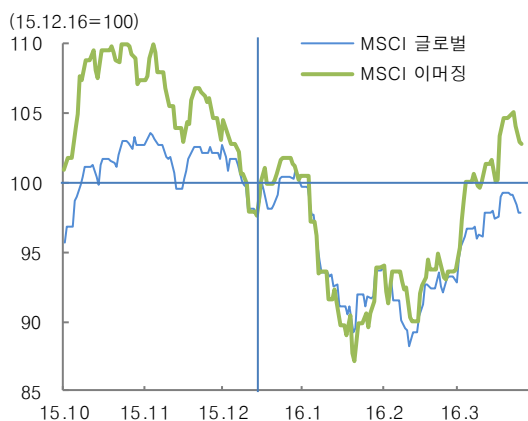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국제유가와 구리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글로벌 증시 추이(MSCI Index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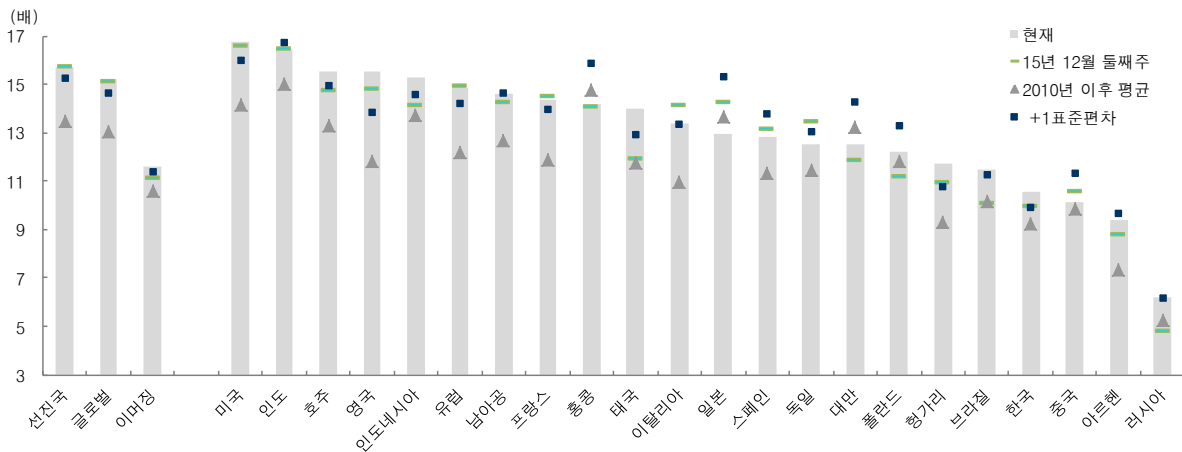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두번째로는 정책 기대, 안도감을 선반영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 권역에 진입했다.

[그림 9번]은 글로벌 지역/국가별 MSCI 기준 12개월 Fwd PER을 비교한 그림이다. 선진국, 글로벌, 이머징 모두 2015년 금리인상 단행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을 회복했다 (2010년 이후 평균, +1표준편차는 물론...). 국가별로 보더라도 금리인상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는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중국 뿐이다.

미국 통화정책을 감안할 때 글로벌 증시는 다시 분기점에 들어섰다.

그림 9.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5년 12월 금리인상 이전수준 회복



주: MSCI 기준 12개월 Fwd PER 기준
자료: Thomson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세번째, 여전히 낮은 실적/경기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 정책 이슈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최근 저점에서 경기 턴어라운드 조짐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 이슈를 극복할 만큼의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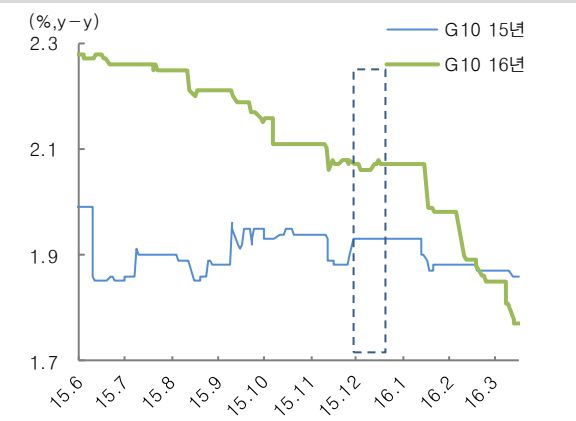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었다[그림 10번]. 작년 12월 16일 2.07%였던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1.77%로 레벨다운되었다. 미국, 유로존이 그 중심에 서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선인 100p를 하향이탈한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익전망치 또한 작년 금리인상 당시보다 레벨다운되었다. 글로벌, 이머징 할 것 없이 평균 3 ~ 4%대 이익하향조정이 있었고, 12월 둘째주 보다 이익이 개선된 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남아공, 인도네시아 네 개 국가에 불과했다.

대부분 위험자산, 리스크 지표들은 작년 금리인상 당시 수준을 회복한데 반해, 펀더멘털 모멘텀은 하향조정된 상황이다. 물론, 펀더멘털 모멘텀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밸류부담을 극복하고, 시장에 강한 신뢰를 심어주기에는 10% 부족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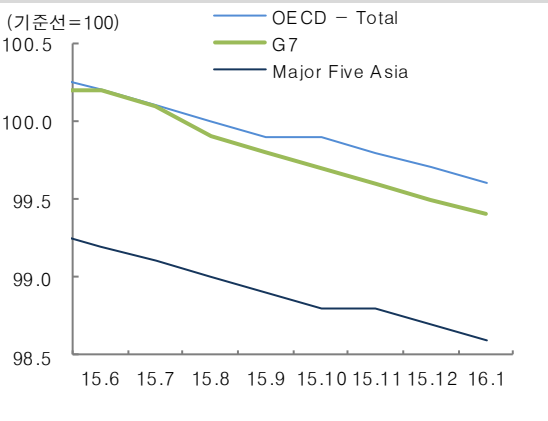
즉,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슈,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에서는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림 10. 선진국 GDP 성장률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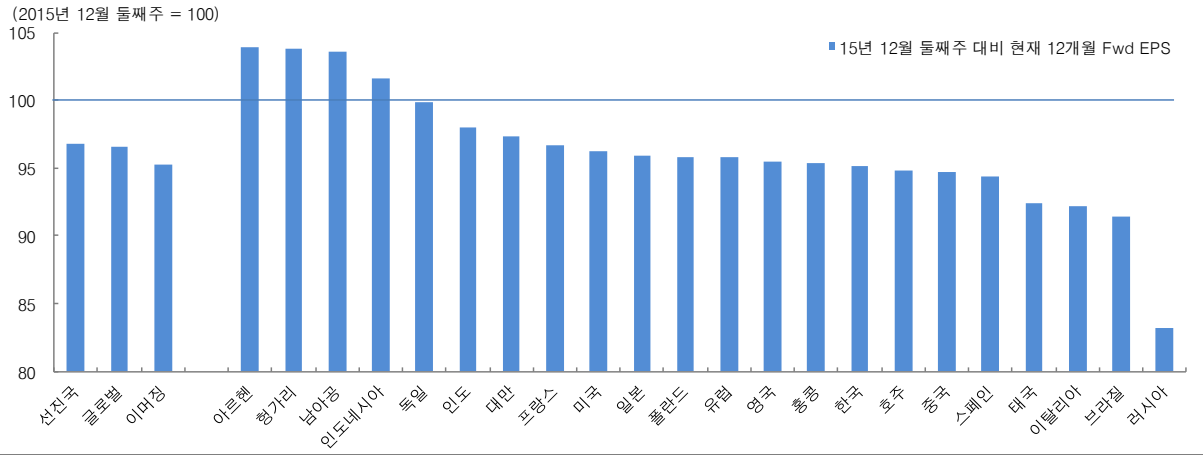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선진국 & 아시아)



자료: OEC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이익전망은 작년 12월 FOMC 회의 당시보다 레벨다운



주: MSCI 기준 12개월 Fwd P/E 기준. 2015년 12월 둘째주 EPS를 100으로 Rebase화한 뒤 현재 수준과 비교. 100 이하는 하향조정된 것.
자료: ThomsonReute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비둘기파의 배신이 아플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지난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최근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매파적인 위원들의 코멘트는 기존에 하던 스탠스를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록하트 총재는 대표적인 중도파로 FOMC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기능자 역할을 해왔고, 존 윌리엄스는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두 위원들이 주 초반부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본다.

4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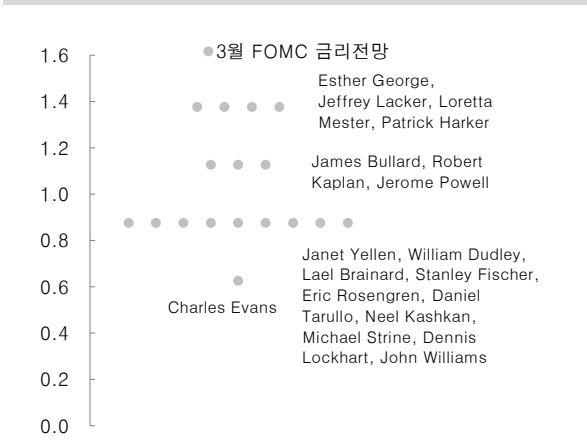
그러나 비둘기파적 위원들의 변심, 매파적 발언은 6월 금리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충분하다. 게다가 최근 연준 위원들은 4월이라는 시기적 언급을 하고 있다. 여전히 유동성, 글로벌 통화정책에 민감한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수록 부담감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 12.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 내용과 성향 분석

연준위원	성향	코멘트 내용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총재)	대표 중도파	21 일 사바나 로터리 클럽. "미국 경제가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르면 4 월 말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 조치를 정당화할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본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	비둘기파	21 일 마켓뉴스 인터내셔널(MNI)과 인터뷰.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여 준다면 4 월이나 6 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	비둘기파	22 일. 올해 2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다려 보는(wait and see) 개념의 통화정책 대응이 적절하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매파	23 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다면 4 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대로(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가다가는 결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	매파	23 일. 미국 경제가 계속 개선된다면 연준은 다음 달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빠르게 긴축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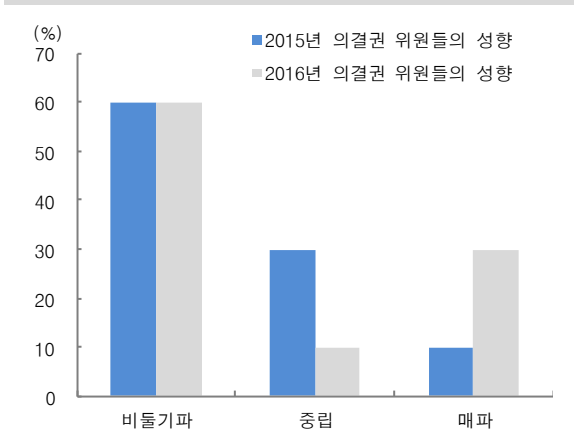
자료: 주요 언론,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3월 FOMC 연준위원별 점도표



자료: FRB,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매파적으로 바뀐 16년 연준 의결권 위원 성향



자료: 주요 언론,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위원들의 발언.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요인

29일 옐런 연준의장 연설 주목

이번주에도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옐런 연준의장(29일),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31일) 연설이 예정되어있다.

윌리엄스와 에반스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주 코멘트를 보면 4월, 6월 금리인상 지지(윌리엄스), 두 번 이상 금리인상 용인(에반스)하는 분위기이다. 한 주만에 스탠스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두 위원들의 경우 지난주 코멘트를 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다.

29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이 예정되어있다. 3월 FOMC회의 이후 첫 연설이자, 최근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옐런의 입에 집중될 것이다.

옐런의 발언을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러 고민 끝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다.

첫번째, 3월 FOMC회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톤 다운시키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지피놓았던 4월 금리인상 우려감이 다소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경우이다.

최근 경제지표 호전, 글로벌 경기/금융시장 안정을 언급하며 3월 FOMC회의 이후 기자회견 당시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경우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맞물려 시장에는 다시금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간접화법으로 주요 이슈를 피해갈 수 도 있다.

원론적인 예기, 즉,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매 회의때마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 등 직접적인 언급 없이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 이슈에 대한 당장의 불안은 누그러질 수 있겠지만, 시장 전반에서는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신경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경기, 글로벌 여건을 보면... 매파적 발언 가능성 높아

최근 미국 경계지표 개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4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결과를 갖고 3월 FOMC회의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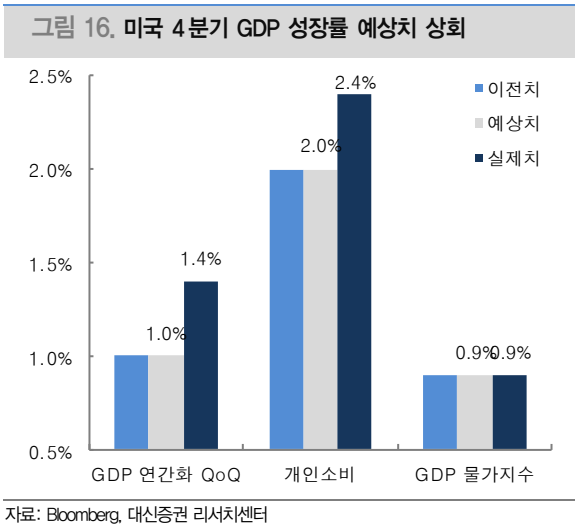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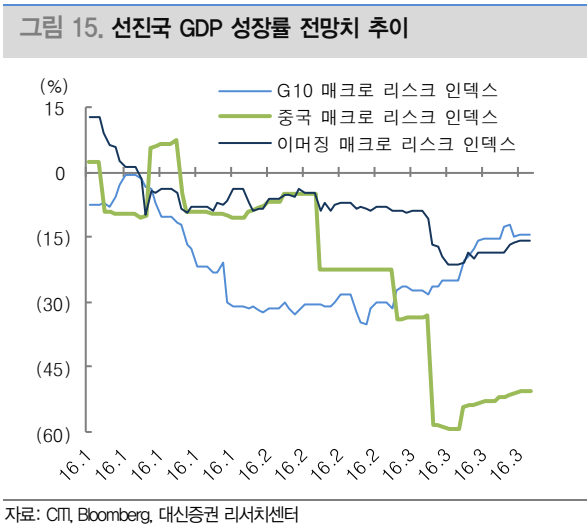
3월 FOMC회의 당시,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100%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100% 매파적인 발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3월 FOMC회의 당시와 같은 스탠스를 보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엘런이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금융시장 여건은 이전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엘런이 4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시나리오 중 두번째,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시장 달래기를 위한 코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런의 발언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연준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FOMC회의는 연준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담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간전망] 차익실현 심리 강화 예상. 시클리컬주 부담 가중

KOSPI 2,000선 회복시도는 안도렐리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특히, 이번주는 주요 경제지표와 엘런 연준의장/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KOSPI 추가 상승폭, 탄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균열조짐이 외국인 매매패턴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KOSPI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이다.

정책 검증, 펀더멘털 모멘텀 확인과 함께 차익실현 심리 확대를 경계해야 할 때로 보인다. 외국인, 기관의 비중과 가격부담을 감안할 때 시클리컬주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주 후반 외국인은 장 중 순매도를 기록하고, 비프로그램 매도가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부 업종/종목에서는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업종은 3월 24일자, [주간리뷰] 글로벌 금융시장의 균열 참조]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충분히 매수한 업종 중에 가격부담이 가중되는 업종들 대부분이 시클리컬 업종이다. 특히, 철강/금속, 조선의 경우 가격/밸류 부담 속에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글로벌 주요증시 일정

일자	경제지표	기타
28	美 2월 개인소비 (전기:0.5%, 예상:0.1%)	EZ, 홍콩, 호주 휴장 (Easter Monday)
	美 2월 개인소득 (전기:0.5%, 예상:0.1%)	
	美 2월 PCE Core (전기:0.3%, 예상:0.2%)	
29	美 3월 소비자신뢰지수 (전기:92.2, 예상:93.9)	<u>엘런 연준의장 뉴욕 연설</u> <u>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싱가포르 연설</u>
	韓 3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98.0, 예상:—)	
	美 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기:0.8%, 예상:0.7%)	
30	美 3월 ADP 취업자 변동 (전기:214k, 예상:193k)	EU-인도 정상회담
	EZ 3월 소비자기대지수 확정 (전기:-9.7, 예상:-9.7)	
	獨 3월 소비자물가 잠정 (전기:0.0%, 예상:0.1%)	
	日 2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3.8%, 예상:-1.7%)	
31	美 3/26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265k, 예상:—)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4차 핵안보정상회의 (31~4/1일)
	美 3월 시카고 PMI 제조업 (전기:47.6, 예상:50.5)	
	EZ 3월 소비자물가 (전기:-0.2%, 예상:-0.1%)	
	韓 2월 산업생산 (전기:-1.9%, 예상:1.7)	
4/1	美 3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49.5, 예상: 50.7)	4차 핵안보정상회의 (31~4/1일)
	美 3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90.0, 예상:90.5)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전기:242k, 예상:207k)	
	美 3월 실업률 (전기:4.9%, 예상:4.9%)	
	EZ 3월 Markit PMI 제조업 확정 (전기:51.4, 예상:51.4)	
	中 3월 Caixin PMI 제조업 (전기:48.0, 예상:48.3)	
	日 3월 Nikkei PMI 제조업 확정 (전기:49.1, 예상:—)	
	韓 3월 소비자물가 (전기:1.3%, 예상:1.4%)	
	韓 3월 수출/입 (전기:-12.2% / -14.6%, 예상:-9.9% / -16.2%)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nancial Market Trend

KOSPI, 대외 변수, 외국인 매매패턴에 일희일비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전주 동향(종가기준): 1,983.81~1,996.81pt

금주 전망: 1,960~2,000pt.

- 3월 18일 이후 25일까지 KOSPI 지수는 0.42% 하락, 1,983.81p로 마감. FOMC발 호재로 레벨업된 이후 KOSPI는 외국인과 기관 간 팽팽한 매매공방 전개. 주 후반 외국인 매수세 약화로 1,990p선 이탈. 연준 위원들의 4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 대외변수에 일희일비하며 6주만에 하락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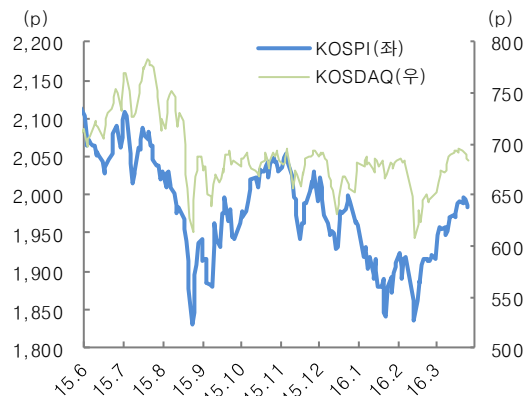
- 3월 18일 이후 25일까지 KOSDAQ지수는 1.70% 하락, 683.20p로 마감. 이번주 섬유/의류, 인터넷, 통신, 제약 등 KOSDAQ 대표업종 중심으로 약세 지속. KOSPI와 더불어 기관의 순매도 지속. 미국 금리인상 이슈가 재차 불거지면서 성장주, 고밸류주들의 변동성 확대 조짐

- KOSPI 내 업종별 등락에서는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의약품 등 소외업종 중심의 업종 순환매 흐름. 유가가 40달러를 넘어서고,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화학업종이 KOSPI 반등 주도. 이외에도 기관의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은행, 철강업종 하락세 시현. 음식료, 유통업종의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가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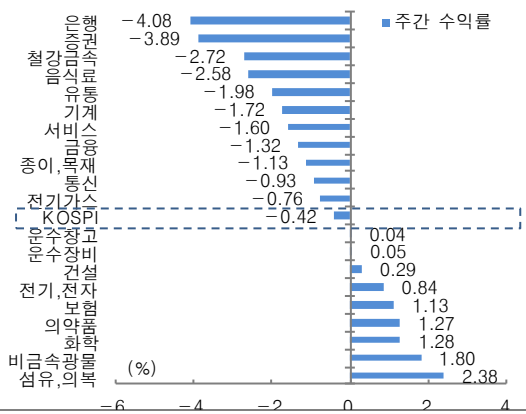
- 외국인 6주 연속 순매수. 규모는 주간 2,896억원으로 지난주대비 크게 축소. 주 후반 원/달러 환율 반등에 현물매수강도 약화/선물 순매도 전환. 한편, 투신의 순매도 행진으로 주간 기관 순매도 지속 (5,779억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7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출되는데 따른 것.

- 미국 금리인상 우려 지속. 위험자산 선호 심리 후퇴로 약세분위기 확대 예상. 29일 엘런 연준의장 연설 주목. 달러, 상품가격 추이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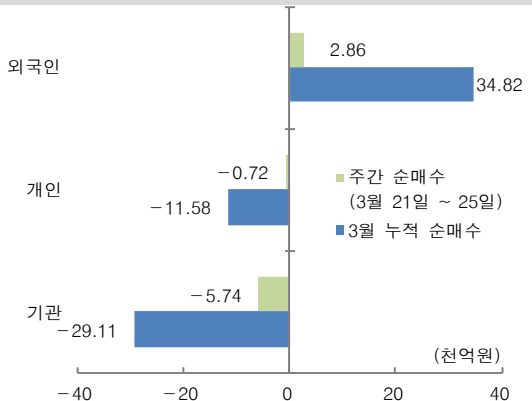
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



주간 업종별 수익률(3월 18일 이후)



주간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전주 동향(일평균기준): 1,158.8~1,167.1원

금주 전망: 1,165~1,200원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주 초반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기대에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 빠르게 달러당 1150원대로 하락하며 연준 최저점을 기록. 하지만 이후 벨기에 테러와 연준의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에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며 상승전환. 단 월말을 앞두고 수출 네고물량이 상단을 제한하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9.2원에 한주를 마감

금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수출네고물량에도 불구하고 미 통화정책 경계감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주 초반에는 2월 PCE물가, 엘런 연준의장 연설 등을 통해 4월 금리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다음달 1일 발표될 고용지표 또한 주요 변수. 임금이 예상을 상회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인상 및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고채 수익률(3년물)

Fixed Income Strategist 박혁수 bondpark@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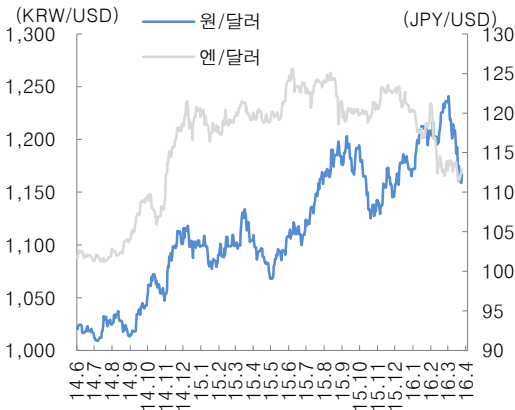
전주 동향(종가기준): 1.495~1.512%

금주 전망: 1.45~1.60%

지난주 채권시장은 시장흐름을 견인할 모멘텀 부재로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전약후강 속 10년 이하강보합, 20년 이상 약보합의 혼조세. 연준위원들의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매파적 발언, 미 국채금리 상승, 외인 선물매도 우위, 유일호부총리의 낙관적 경기인식, 통화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금통위원 발언 등이 약세 재료로, 하성근 금통위원의 한국 경제 위기 발언, 저가매수 수요 등이 금리 상승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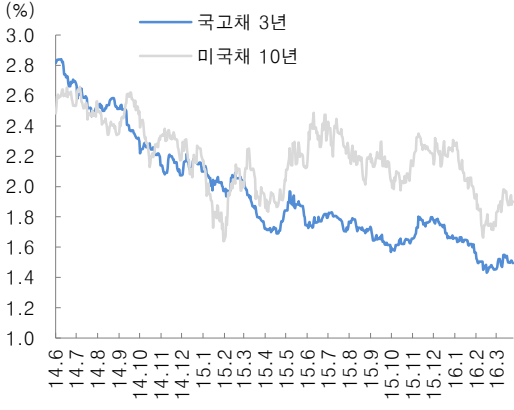
단기적으로 펀더멘탈과 통화정책이라는 금리상승과 하락재료가 충돌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 시장금리는 재료노출에 따른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내재료보다 국내 경기 및 통화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지표 및 가격 변수에 연동한 천수답 장세가 예상. 금주는 발표될 월말~월초 경제지표는 채권시장 강세를 지지할 것이다. 다만, 화재가 선반영된데다,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강세재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그림 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및 미국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中國周刊

Analyst 성연주 cyanzhou@daishin.com

1. Summary

[Preview] 지난해 장내/외 신용거래 규제 완화 루머로 신용거래잔액이 반등(유동성 증가)하며 상해종합지수 3,000P 상회 시도했으며, 2,900P선 안착

[Review] 지난 25일 발표된 1선도시 부동산 규제 및 3월 PMI지수/기업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상해종합지수 단기 변동성 확대 예상

2. China Weekly Indicator

주간 중국 증시 등락률

주요지수	종가	주간등락폭	주간등락률(%)
상해종합지수	2979.4	24.3 ▲	0.8 ▲
심천종합지수	1885.2	48.0 ▲	2.6 ▲
호심300지수	3197.8	25.9 ▲	0.8 ▲
차스닥	2216.1	38.2 ▲	1.8 ▲
항셱H지수	8701.1	-181.9 ▼	-2.0 ▼
항셱지수	20345.6	-326.0 ▼	-1.6 ▼

주간 업종 수익률(%)

Best 5	수익률	Worst 5	수익률
농림어목	5.5	석탄	-1.4
국방	4.4	석유화학	-1.1
자동차	4.1	은행	-0.8
IT	3.7	비철금속	-0.5
기타	3.7	철강	-0.2

Valuation(12m fwd)

	상해종합지수	항셱 H 지수
16 P/E	10.68	9.49
16 EPS증가율	8.60	7.08
16 ROE	11.55	12.11
16 P/B	1.23	1.15
16 배당수익률	3.11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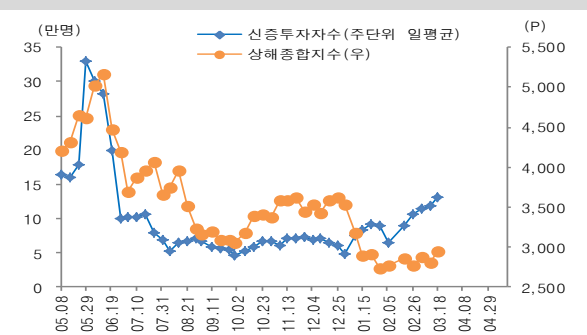
상해종합 주요업종 주간 수익률

	종가	수익률
은행	공상은행	4.3 ▲ -0.5 ▼
	건설은행	4.8 ▲ -0.4 ▼
	중국은행	3.4 ▲ -2.0 ▼
석유	페트로차이나	7.6 ▲ -3.2 ▼
	시노펙	4.5 ▲ -3.2 ▼
철강	바오산스틸	5.2 ▲ -2.6 ▼
	안강스틸	4.1 ▲ -2.4 ▼
	무한철강	3.0 ▲ -2.0 ▼
운수	중국해운컨테이너	4.6 ▲ -1.3 ▼
	중해발전	6.8 ▲ -1.9 ▼
	차이나코스코홀딩스	6.2 ▲ -1.6 ▼

항셱H 주간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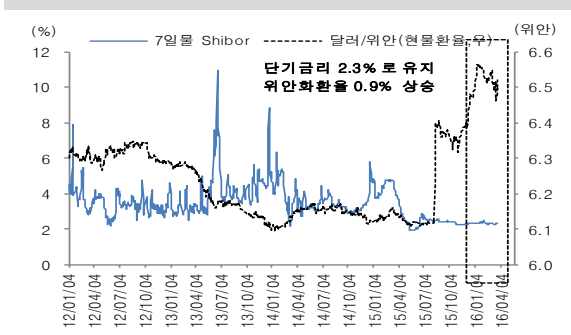
종목	종가	수익률
HTSC	17.2	8.1 ▲
광발증권	18.0	7.9 ▲
중신증권	17.7	3.5 ▲
태평양보험	27.8	1.6 ▲
해통증권	12.7	0.8 ▲
신화보험	26.1	0.4 ▲
차이나텔레콤	3.9	-0.3 ▼
중국교통건설	8.1	-0.7 ▼
시노팜	31.0	-1.1 ▼
중광핵전력	2.5	-1.2 ▼
만달상업	37.8	-1.4 ▼

그림 1 신증투자자지수 전주대비 13.1% 증가(3월18일 기준)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지난주 위안화 환율 0.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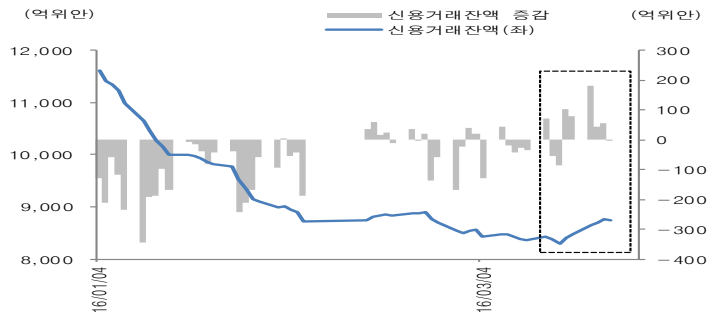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Review

- 일부 증권사들 장내/외 신용거래 규제 완화 실시 루머로 증권주 강세 지속. 지난주 신용거래액 277억 위안 증가하며 신용거래잔액 반등
- 24일 ‘보아오 포럼’에서 리커창총리가 ‘심항통’ 연내 실시를 재차 언급하면서 2/4분기내 일정 발표 기대감 확대

그림 3 지난주 신용거래잔액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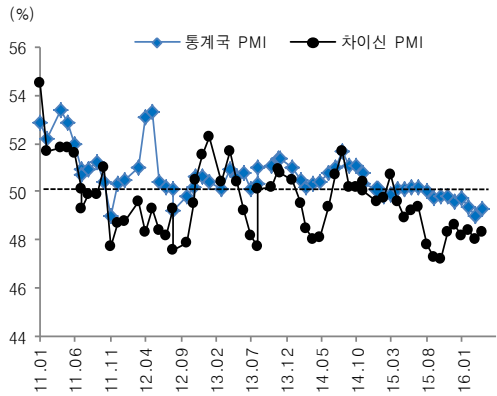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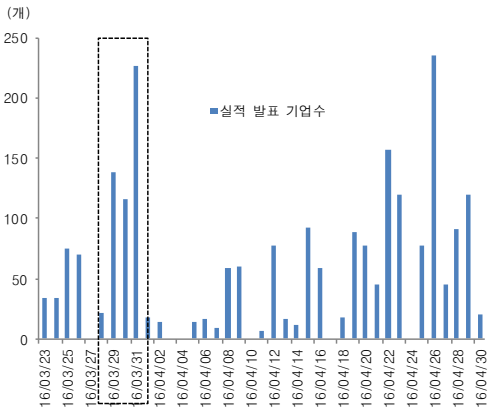
- 25일 상해(오전)/심천시(저녁) 부동산 신정책 발표. 대부분 상해/심천 비거주자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강화
 - 1) 2주택 담보대출 선수금 비율 상향조정. 상해 비거주자 기존 30% → 70%, 심천 10% → 40%
 - 2) 구매제한 정책 실시. 상해 비거주자 2년 → 5년, 심천 1년 → 3년⇒ 이번 정책 실시로 1선도시 부동산 거래량 둔화 점진적 예상. 단, 전체 부동산에서 1선도시 비중 10%~20% 정도로 미미하며, 2선~3선 도시 부동산 부양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2선~3선 도시 주택 재고/판매 중요
- 오는 1일 중국 3월 통계국 PMI지수 발표 예정. 예상치 49.3%로 전월(49%)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 계절적 영향 및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신수주 주문지수 개선 예상
- 이번주(3월 28일~4월 2일) 535개 기업 실적 발표 예정. 특히 시총 비중이 큰 은행(공상/건설/농업/중국/초상/교통/민생 은행 등)/정유(시노펙)/기계(중국중차) 업종 발표 예정.

그림 4 3월 통계국 PMI 지수 예상치 49.3%로 전월대비 소폭 반등 예상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3월 29일~4월 1일 실적 발표 기업수 증가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PVLT 주간 업종 선호도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선호업종 : 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등

PVLT 업종 선호도는 상대성과(Relative Performance), 이익(Valuation), 유동성(Liquidity), 가격(Technical)의 네가지 변수 모멘텀에 따라 0~10점 값을 갖는다.

지난주 선호업종이었던 비철금속, IT가전, 화학 등은 평균 1.63% 하락해 0.42% 하락한 KOSPI보다 1.21%p 초과 약세였다.

3월 5주차 PVLT 선호업종은 화학, 건설, 디스플레이 등이다.

소프트웨어와 IT 가전이 선호업종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건설이 새롭게 선호업종에 추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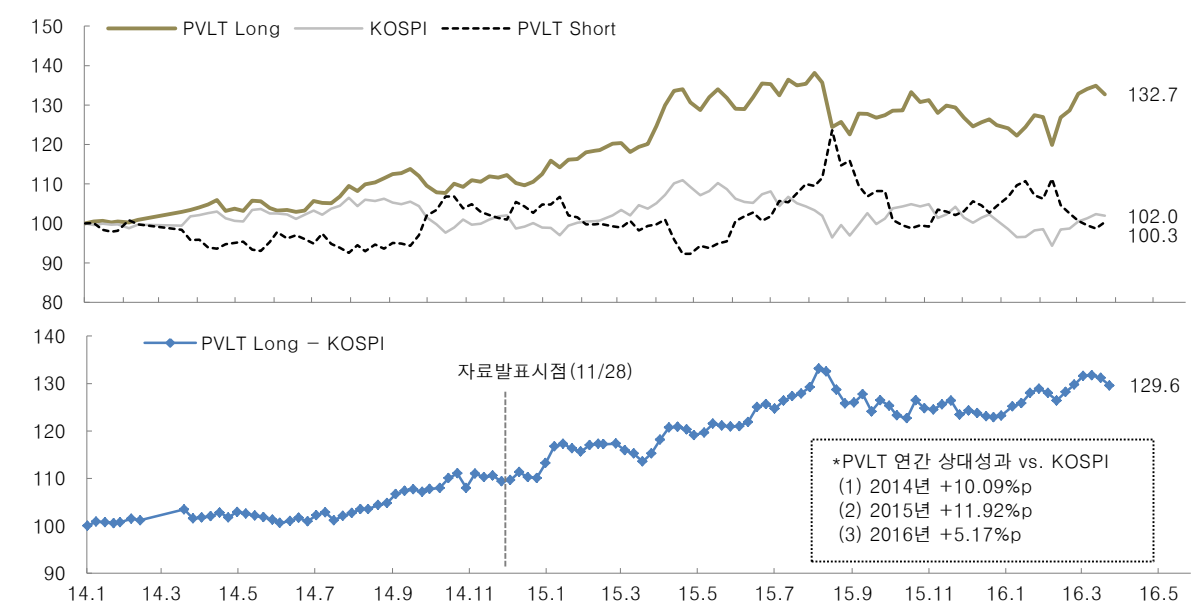
그림 1. PVLT 점수 = 주도력+이익+유동성+기술적분석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선호업종	비철금속	비철금속	비철금속
	철강	철강	조선
	조선	조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화학
	화학	화학	철강
	건설	IT가전	건설
	보험 등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PVLT 성과(%)	0.63	-1.63	
KOSPI 성과(%)	1.05	-0.42	
상대성과(%p)	-0.42	-1.21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호업종은 PVLT 점수 순서로 배열

지난주 PVLT 매수(8점이상)섹터가 KOSPI보다 1.21%p 초과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매도(2점이하)섹터는 KOSPI보다 1.23%p 상대적 약세였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6주만에 하락하며 2월 이후의 주가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PVLT 최근 성과는 주식시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 PVLT 선호업종의 개수가 처음으로 감소하며 지수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비선호업종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Short(공매도)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림 2. 2014년 이후 PVLT 성과 (1) Long : 8점 이상 (2) Short : 2점 이하



자료: WISE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PVLT Short 성과는 공매도시 성과임

PVLT는 변수 모멘텀에 따라 점수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8점 이상을 선호한다.
한 주간 IT하드웨어(+2점)의 점수 상승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 11월 28일자 '주간 업종 선택 전략' 참조

그림 3. PVLT 변수별 현황 : 3월 25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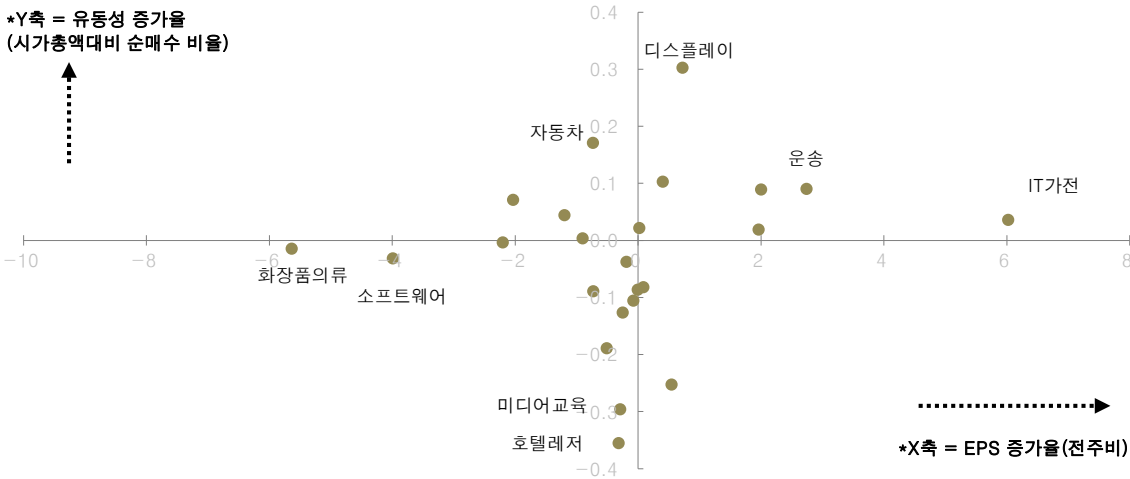
PVLT	Sector	전주비	SCORE			Valuatlon(3점)			Liquidity(3점)			Technical(2점)		Re.Price(2점)	
			03월 25일	03월 19일	03월 12일	EPS(12M fwd)		EPS Growth	순매수(기관+외국인)			이동평균선 방향		이동평균선 방향	
						4주 +	12주 +	12주 +	4주 +	12주 +	유입 강도	4주	12주	4주	12주
선호	비철금속	0	10	10	10	○	○	○	○	○	○	○	○	○	○
	조선	0	10	10	10	○	○	○	○	○	○	○	○	○	○
	에너지	0	9	9	9	○	○	○	○	○	○	○	○	○	○
	화학	0	9	9	9	○	○	○	○	○	○	○	○	○	○
	철강	-1	9	10	10	○	○	○	○	○	○	○	○	○	○
	건설	1	8	7	8	○	○	○	○	○	○	○	○	○	○
	디스플레이	0	8	8	7	○			○	○	○	○	○	○	○
중립	기계	0	7	7	7			○	○		○	○	○	○	○
	은행	0	7	7	6	○		○	○	○	○	○		○	
	운송	0	6	6	6	○	○	○	○		○	○			
	소매(유통)	0	6	6	5	○		○	○	○		○		○	
	건강관리	1	6	5	4		○				○	○	○	○	○
	보험	0	6	6	8		○	○	○	○	○	○			
	소프트웨어	-2	6	8	8		○			○	○	○		○	
	IT가전	-3	6	9	8	○	○	○		○		○	○		
	유틸리티	0	6	6	7	○	○			○			○		○
	자동차	0	5	5	6			○	○	○	○	○			
	화장품,의류	0	5	5	3		○	○			○	○		○	
	IT하드웨어	2	5	3	4	○		○			○	○		○	
	반도체	0	5	5	5				○	○	○	○		○	
	미디어,교육	0	4	4	3	○	○	○			○	○			
비선호	필수소비재	0	1	1	0							○			
	통신서비스	-3	1	4	4					○					
	상사, 자본재	-1	0	1	1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는 주간 업종 EPS(12M Fwd)와 유동성(기관+외국인)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 주간 IT가전과 운송의 이익추정치 증가율이 높았고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는 유동성 보강이 컸다.

그림 4. 이익과 유동성으로 본 업종 모멘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는 KOSPI100 PVLТ 신호도 결과이다. 현대백화점, 아모레G, KB금융이 선호종목에 편입된 가운데 LG전자, 대우건설, 현대제철, 영풍, 코웨이가 선호종목에서 제외되었다.

PVLТ 주간점수 상승 폭이 컸던 종목은 현대차, 제일기획, 한화생명이다.(그림 6)

그림 5. KOSPI 100 종목별 PVLТ 신호도 : 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3월 25일	03월 18일	03월 11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선호	에너지	SK이노베이션	0	10	10	10	0.9	11.0	24.2	9.8	0.9	9.2
	에너지	S-Oil	0	10	10	9	1.7	13.0	15.0	10.8	1.7	16.6
	소재	OCI	0	10	10	8	-2.7	2.2	22.3	13.3	0.7	5.4
	운송	대한항공	1	10	9	9	-4.4	14.2	6.1	10.2	1.0	9.4
	자동차와부품	한국타이어	0	9	9	9	-1.5	0.8	13.3	9.3	1.1	12.7
	자본재	두산인프라코어	1	9	8	7	0.7	47.0	26.3	10.5	0.6	5.4
	자본재	대우조선해양	-1	9	10	9	-9.1	17.2	2.2	38.8	1.6	4.2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1	9	8	8	3.7	8.7	4.1	48.4	0.8	1.6
	소매(유통)	롯데쇼핑	0	9	9	8	-5.4	9.4	10.3	15.4	0.5	3.2
	자본재	현대산업	1	9	8	6	1.7	16.7	16.4	11.6	1.3	12.0
	자본재	한화테크윈	1	9	8	8	-3.2	-3.8	2.8	23.4	1.0	4.0
	소재	롯데케미칼	0	9	9	10	4.6	9.5	39.2	9.0	1.2	14.8
	자본재	삼성중공업	0	9	9	9	-8.2	3.7	3.2	24.4	0.5	2.5
	소재	고려아연	0	9	9	8	-1.6	5.2	2.8	14.3	1.5	11.8
	자본재	대림산업	1	9	8	8	4.3	11.5	32.9	9.8	0.7	7.4
	은행	BNK금융지주	-1	8	9	8	-5.0	1.9	6.1	5.4	0.4	8.5
	은행	KB금융	2	8	6	6	-3.2	6.4	-4.2	7.3	0.4	5.7
	에너지	GS	-1	8	9	9	3.4	2.4	8.9	7.3	0.7	10.3
	소매(유통)	현대백화점	1	8	7	7	3.5	8.5	16.6	11.1	0.9	8.4
	은행	신한지주	0	8	8	7	-1.1	5.9	4.4	8.5	0.6	7.4
	자본재	대우인터내셔널	0	8	8	8	-9.8	10.8	29.1	11.9	0.9	8.1
	증권	미래에셋증권	0	8	8	9	-2.2	18.4	1.4	11.5	0.7	6.3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엔씨소프트	-1	8	9	9	-4.1	7.2	14.8	17.8	2.7	16.2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0	8	8	7	-3.4	-0.9	4.1	9.6	0.3	3.6
	소프트웨어와서비스	NAVER	0	8	8	8	-4.1	5.3	-6.8	28.4	5.7	26.4
	보험	삼성생명	0	8	8	8	3.6	2.7	5.5	14.0	0.8	6.6
	자본재	현대중공업	-2	8	10	9	-7.6	-1.9	17.3	22.1	0.5	2.6
	자본재	LS	0	8	8	9	-2.2	6.2	10.5	13.0	0.5	4.8
	보험	동부화재	0	8	8	8	-1.6	9.0	3.8	11.0	1.1	11.7
	소재	POSCO	-1	8	9	9	-3.0	4.5	25.8	14.5	0.4	3.0
	내구소비재와의류	아모레G	2	8	6	3	0.3	6.3	2.0	34.9	4.0	13.1
	자본재	두산	0	8	8	7	-3.5	10.5	-5.9	11.8	0.6	7.2
	은행	우리은행	0	8	8	8	-3.7	2.3	3.2	5.7	0.3	5.5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KOSPI 100 종목별 PVLТ 신호도 : 전주비 상승 종목 (3 점 이상)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3월 25일	03월 18일	03월 11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중립	자동차와부품	현대차	3	7	4	5	1.66	4.08	2.68	7.03	0.60	9.48
	미디어	제일기획	3	5	2	1	-2.23	0.29	-15.46	17.99	1.88	12.81
	보험	한화생명	3	3	0	1	0.00	4.07	-10.01	10.90	0.52	5.54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KOSPI100내 PVLТ기준 비선호 종목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KOSPI 100 종목별 PVLТ 선호도 : 비선호

PVLТ	업종 구분(중)	종목	전주비	SCORE			수익률(%)			Valuataion		
				03월 25일	03월 18일	03월 11일	주간	월간	YTD	12M fwd.		
비선호	운송	현대글로비스	1	2	1	4	3.5	-1.0	-0.5	13.1	2.0	16.1
	증권	한국금융지주	-3	2	5	2	-5.2	5.2	-10.1	9.2	0.8	8.9
	자본재	한국항공우주	-2	2	4	6	-5.0	-5.9	-14.3	24.4	4.4	19.8
	자본재	삼성물산	-2	2	4	3	-2.7	-6.5	2.1	58.0	1.4	2.9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삼성에스디에스	1	2	1	1	-8.7	-12.9	-32.1	29.6	2.8	10.0
	상업서비스와공급망	에스원	1	2	1	1	0.1	-6.2	-9.0	21.5	2.6	14.5
	자동차와부품	현대모비스	0	2	2	7	0.6	-4.0	1.2	7.2	0.8	12.1
	자동차와부품	현대위아	-3	2	5	6	-0.9	-2.7	-4.0	7.0	0.8	12.2
	소재	한화케미칼	0	2	2	3	1.7	-1.0	-11.6	9.6	0.8	8.2
	자본재	LG	0	2	2	4	0.6	-8.0	-4.5	10.2	0.8	8.6
	유틸리티	한전KPS	1	1	0	0	-6.1	-8.4	-24.2	17.0	3.7	22.0
	자본재	SK	-1	1	2	3	-1.9	-2.7	-2.7	11.9	0.9	10.2
	자본재	삼성엔지니어링	-3	1	4	4	17.5	11.7	-23.4	11.7	1.9	25.9
	통신서비스	SK텔레콤	1	1	0	3	-3.3	-7.8	-3.7	11.0	0.9	9.7
	식품,음료,담배	롯데칠성	-1	1	2	2	-4.9	-5.1	-12.4	27.1	1.1	4.0
	소매(유통)	신세계	-2	1	3	8	-1.2	-1.7	-10.2	10.8	0.6	6.0
	식품,음료,담배	오리온	0	1	1	1	-0.2	-1.6	-22.2	22.9	2.9	15.4
	자본재	CJ	-1	1	2	1	-6.0	-7.0	-12.6	23.2	1.5	7.7
	호텔,레스토랑,레저	GKL	-1	0	1	4	-0.8	-4.9	-2.7	13.6	2.8	21.6
	기술하드웨어와장비	LG이노텍	-2	0	2	2	-4.2	-10.0	-19.8	12.8	1.0	7.9
	반도체와반도체장비	SK하이닉스	-2	0	2	7	-1.0	-5.4	-5.2	9.2	0.9	10.2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Today's Data Snapshot

<Monday> Global Fund Flow

Analyst 김영일 ampm01@daishin.com

주식자금 4주만에 순유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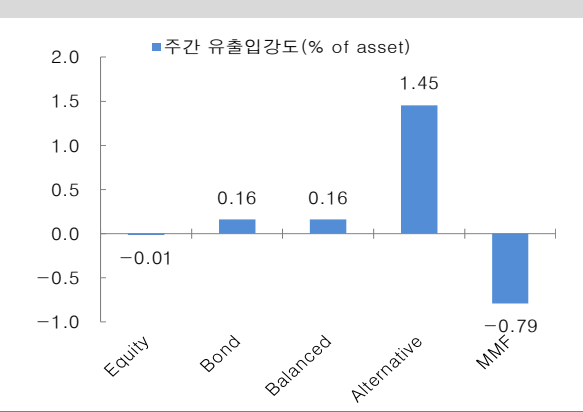
- 1. MMF 294.3억달러 순유출 : 대체투자 수요 증가. EPFR에 따르면 지난주 (3/17~3/23) MMF에서 총 294억달러 순유출. 주식을 제외한 여타 자산 순 유입 지속. 특히 대체투자자로 자금 유입 증가(인컴펀드 등)
- 2. Equity 10.9억달러 순유출 : 선진국(-39.8억달러)과 신흥국(+28.9억달러)의 지역간 차별화. 북미(-33.3억달러), 서유럽(-16.3억달러), 일본(-1.9억달러)에 서는 자금이 유출된 반면 GEM(21억달러)등 신흥국으로는 자금 유입 지속. 다만, 신흥국 유입자금 대부분이 ETF인 만큼 연속성 여부는 불투명. 지난주 유가하락과 신흥국통화 약세 전환으로 신흥국 ETF 자금 유입 둔화 전망
- 3. Bond 58.8억달러 순유입 : 선진지역(+44.7억달러)과 신흥지역(+14.1억달러) 4주 연속 유입 지속. 퍼시픽(특히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 신흥지역 자금 유입. 퍼시픽은 10주 연속 유출세를 보이는 반면, GEM(+14.9억달러)으로는 52주내 가장 높은 유입강도 기록

표 1. 자산별 자금 유출입 (W:3월 17일~3월 23일)

Asset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 1년	Net Flow	% of asset
Equity	236.4	4466.2	4307.2	-1090.3	0.11	-0.68	-0.47	-47800.9	-0.69
Bond	4775.0	6085.6	7667.6	5875.5	0.68	0.79	-0.33	28048.2	0.78
Balanced	857.0	1847.5	863.3	1335.1	0.60	-1.49	-0.63	-11873.8	-1.53
Alternative	971.7	1492.9	734.4	1902.1	4.03	3.35	1.08	4176.9	3.27
MMF	-711.4	-3558.4	-39425.4	-29433.3	-1.95	-0.88	1.29	-33065.5	-0.90
(All Assets)	6128.7	10333.7	-25852.9	-21410.9	-0.20	-0.40	-0.02	-60515.1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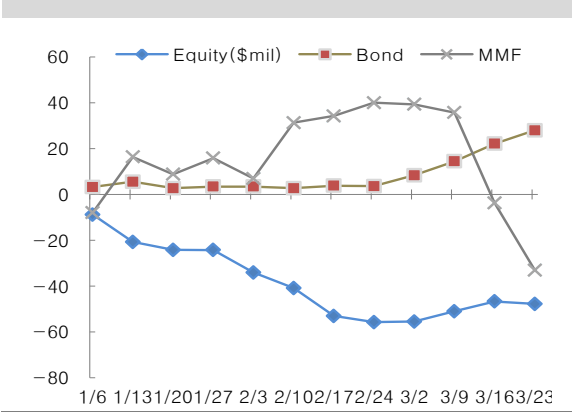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자산별 주간 유출입 강도(% of asset)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최근 12주 자산별 펀드 플로우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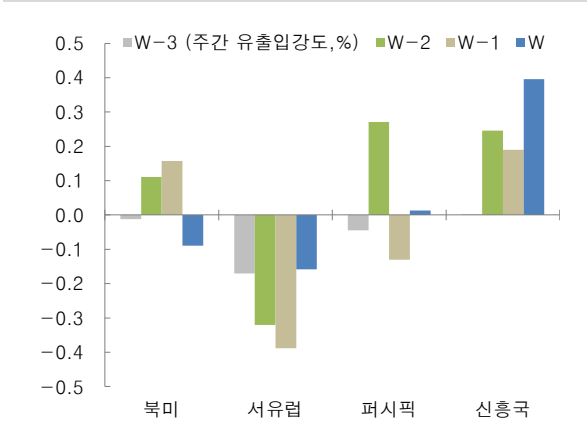
1. Equity

표 2. Equity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년	
	W-3	W-2	W-1	W	1개월	3개월	최근 1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2479.9	975.9	1592.5	931.5	0.42	0.62	3.18	8796.9	0.62
North America	-446.3	4068.4	5758.8	-3325.8	0.16	-1.36	-3.71	-48107.4	-1.36
Western Europe	-1659.4	-3268.2	-3950.1	-1629.9	-1.02	-1.27	5.83	-12928.8	-1.27
Asia Pacific	-153.0	953.2	-466.0	47.2	0.11	1.98	15.56	6920.8	1.98
(All Developed)	221.1	2729.2	2935.2	-3977.0	0.03	-0.72	0.28	-45318.6	-0.72
GEM	195.6	2138.6	1428.2	2103.4	1.59	-0.29	-5.68	-335.2	-0.29
Asia Ex-Japan	-210.8	-801.1	-340.5	455.4	-0.29	-1.01	-10.17	-3032.0	-1.01
Latin America	19.5	252.0	312.5	169.0	3.89	4.53	-10.55	850.3	4.53
EMEA	11.0	147.5	-28.2	159.0	0.90	-0.01	-6.09	34.7	-0.01
(All Emerging)	15.3	1737.0	1372.0	2886.7	0.81	-0.45	-7.75	-2482.3	-0.45
*All Equity	236.4	4466.2	4307.2	-1090.3	0.11	-0.69	-0.56	-47800.9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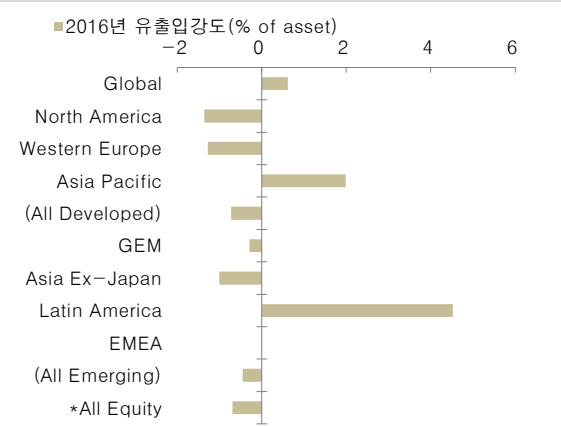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최근 4주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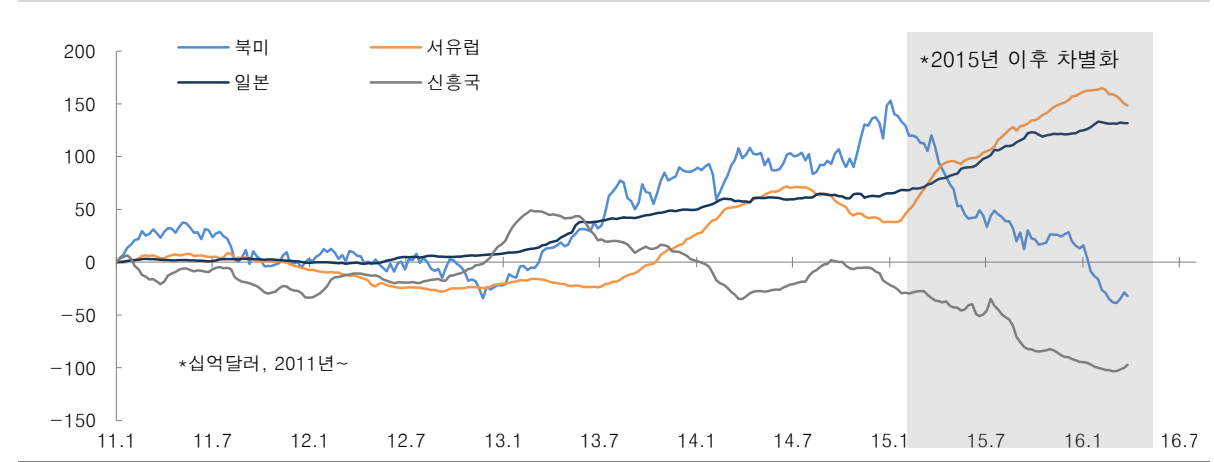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2016년 지역별 주식형펀드 유출입 강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요국 주식 펀드플로우 추이 (2011년~)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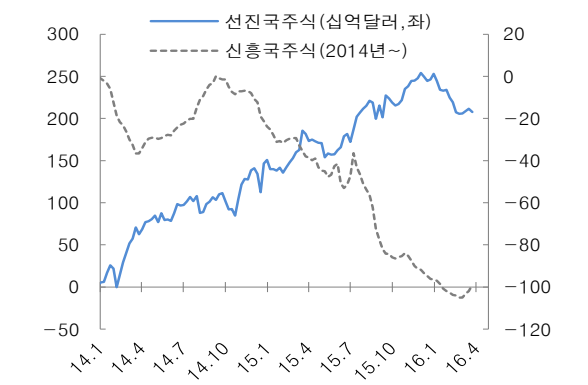
2. Bond

표 3. Bond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 년	
	W-3	W-2	W-1	W	1 개월	3 개월	최근 1 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265.3	1027.5	2203.7	780.7	0.58	-1.46	-4.81	-9401.9	-1.46
North America	4208.8	4400.3	3112.0	1945.3	0.67	2.06	3.03	41967.9	2.06
Western Europe	481.5	-252.4	1684.9	1783.2	0.61	-0.32	-2.39	-1771.6	-0.32
Asia Pacific	-122.7	-140.5	-97.3	-39.2	-0.94	-2.69	-0.56	-1131.5	-2.69
(All Developed)	4302.3	5034.9	6903.2	4470.0	0.62	0.89	0.45	29663.0	0.89
GEM	387.6	898.5	649.3	1494.3	2.04	-1.52	-14.73	-2154.0	-1.52
Asia Ex-Japan	191.8	104.1	208.1	10.9	0.81	1.32	8.55	834.5	1.32
Latin America	-78.8	42.4	-90.3	-101.8	-1.75	-1.31	-28.41	-161.9	-1.31
EMEA	-27.9	5.6	-2.8	2.0	-0.27	-1.59	-10.98	-133.4	-1.59
(All Emerging)	472.7	1050.7	764.4	1405.4	1.46	-0.77	-10.59	-1614.9	-0.77
*All Bond	4775.0	6085.6	7667.6	5875.5	0.68	0.78	-0.33	28048.2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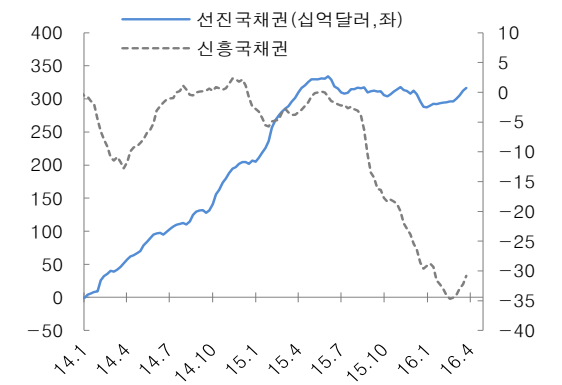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주식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채권형펀드 : 선진국 vs. 신흥국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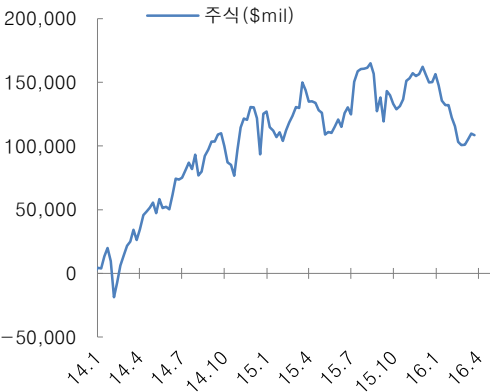
3. Equity_only ETF

표 4. Equity(only ETF) Fund Flow

Region	Net Flows(\$mil)				% of asset			2016 년	
	W-3	W-2	W-1	W	1 개월	3 개월	최근 1 년	Net Flow	% of asset
Global	285.1	782.7	993.0	61.8	0.78	1.37	16.41	3651.9	1.37
North America	955.6	4727.2	7609.8	-501.0	0.97	-0.88	3.69	-10535.8	-0.88
Western Europe	-1709.6	-1667.1	-3087.8	-819.9	-3.08	-3.54	12.37	-8261.6	-3.54
Asia Pacific	-217.7	1564.1	-222.8	472.0	0.80	3.39	22.17	6625.9	3.39
(All Developed)	-686.6	5406.9	5292.1	-787.1	0.46	-0.45	8.25	-8519.5	-0.45
GEM	133.8	2090.6	1492.8	2418.4	6.70	2.93	0.27	3184.4	2.93
Asia Ex-Japan	105.4	-389.2	183.4	845.0	0.61	3.15	-3.74	3504.4	3.15
Latin America	20.0	226.4	241.8	119.9	4.98	8.42	-0.83	947.9	8.42
EMEA	1.4	117.6	7.5	112.8	1.69	1.48	-2.50	215.0	1.48
(All Emerging)	260.7	2045.4	1925.5	3496.1	3.27	3.32	-1.75	7851.8	3.32
*All ETF	-426.0	7452.3	7217.6	2709.0	0.75	-0.06	7.10	-667.8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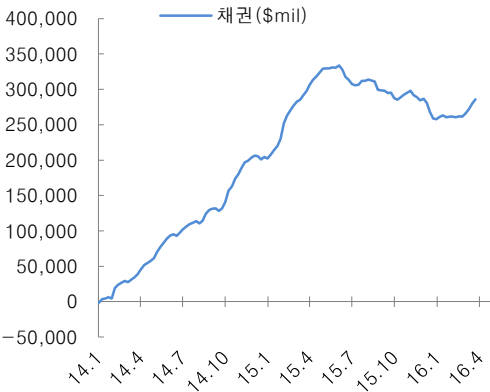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전체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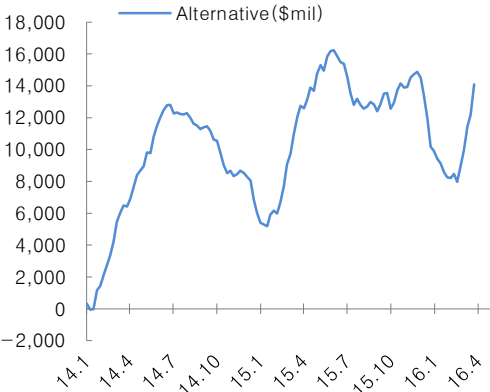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전체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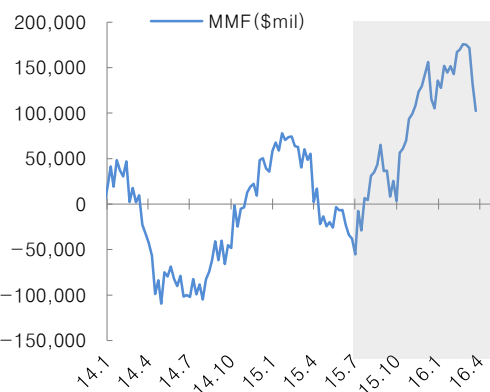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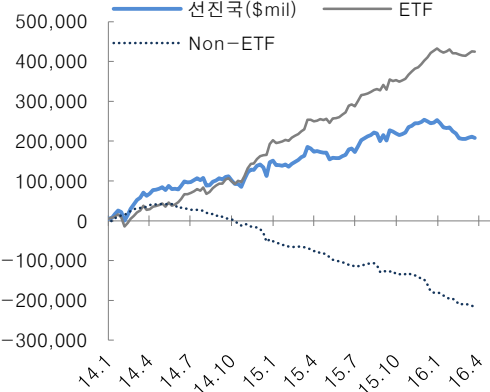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M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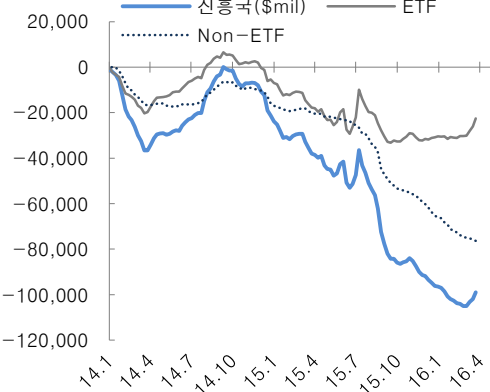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선진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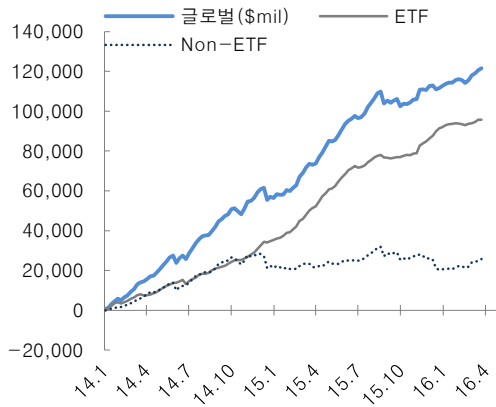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신흥국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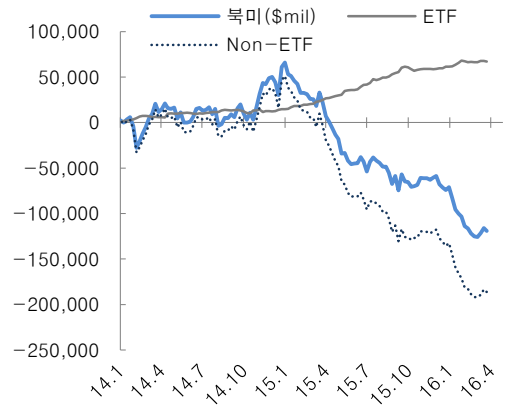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글로벌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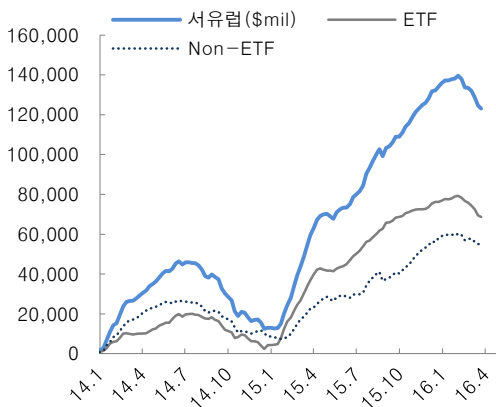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북미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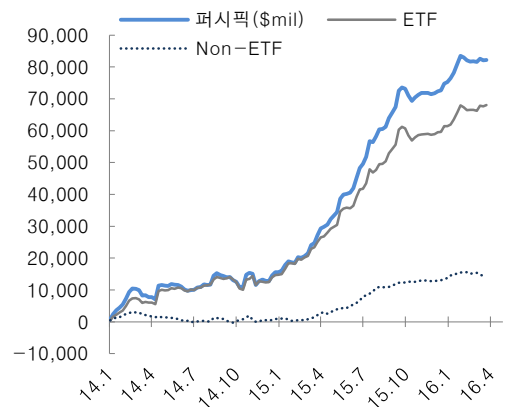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서유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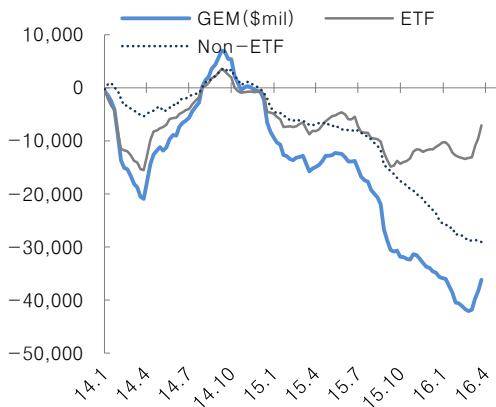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퍼시픽주식: ETF vs. Non-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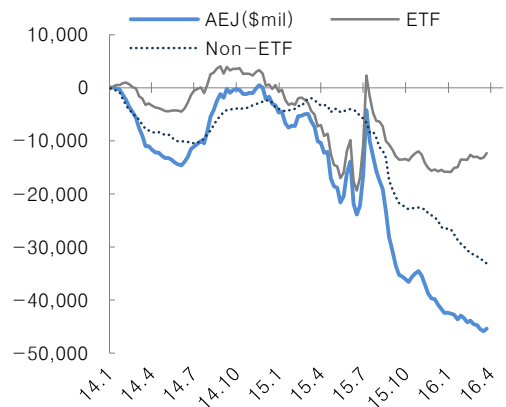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GEM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AEJ 주식: ETF vs. Non-ETF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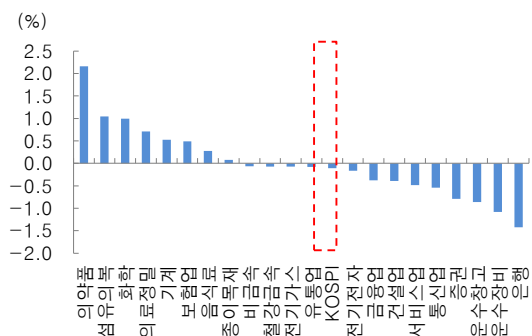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25일 KOSPI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0.11% 하락한 1,983.81에 거래 마감
-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06억원, 401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409억원 매수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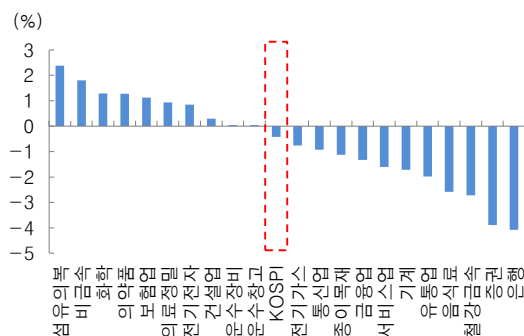
▶ 국내증시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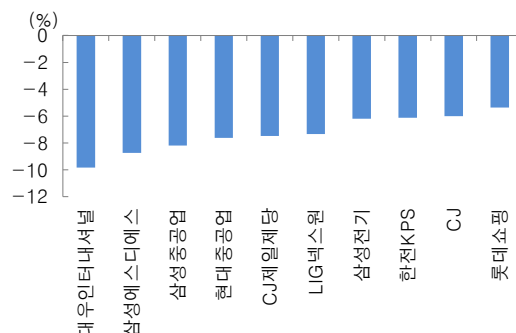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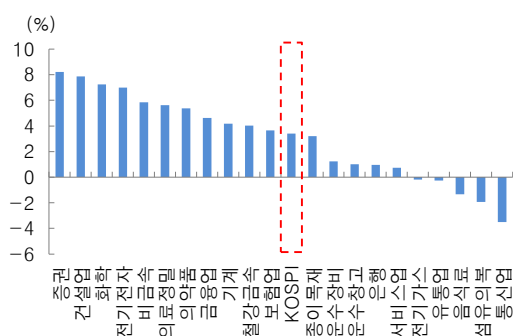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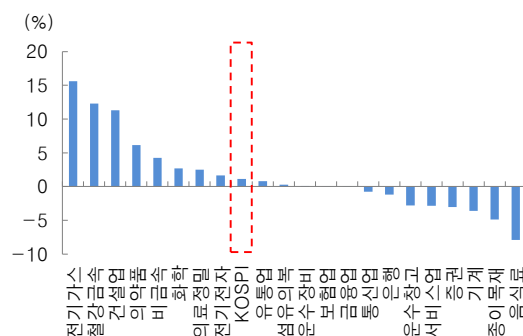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연간 업종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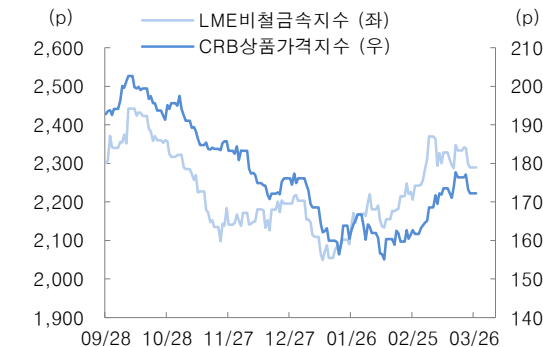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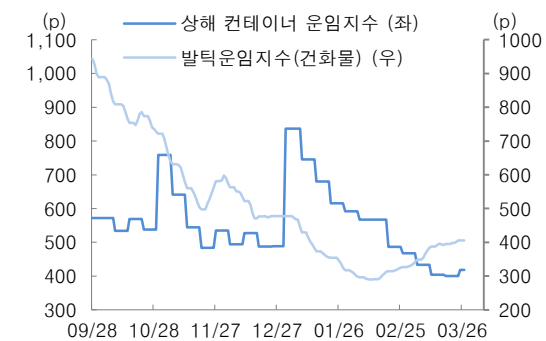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80% 하락한 39.46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4월 인도분이 전날 종가보다 0.20% 내린 온스당 1221.6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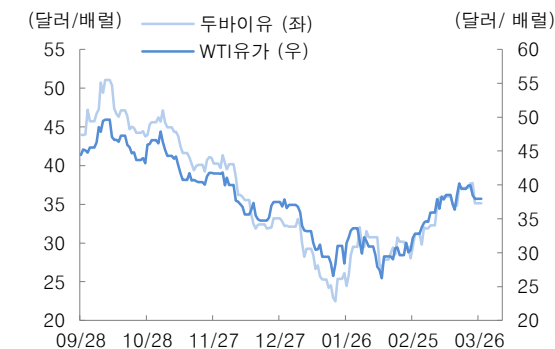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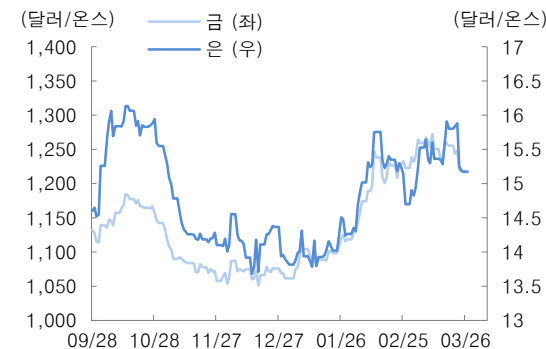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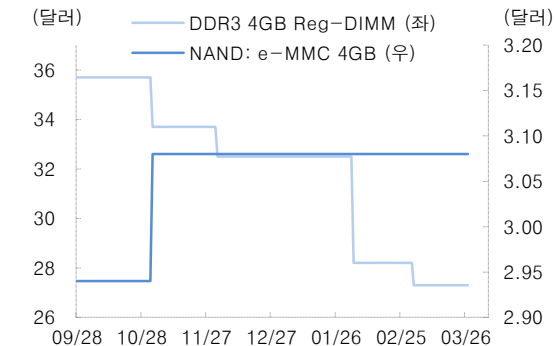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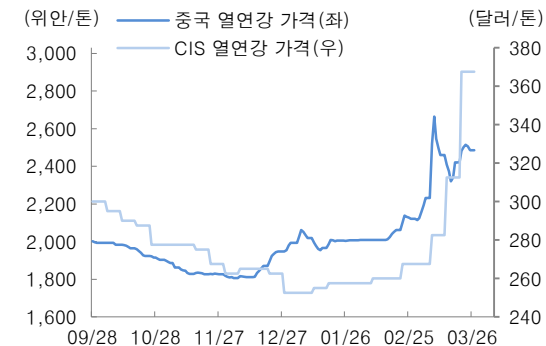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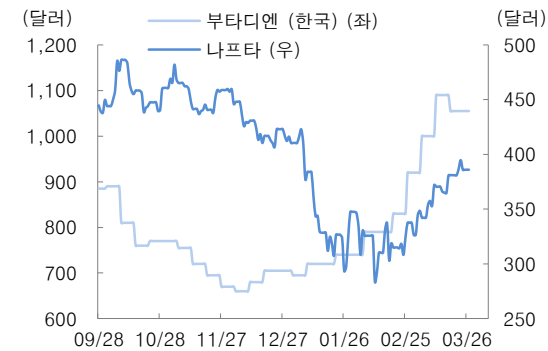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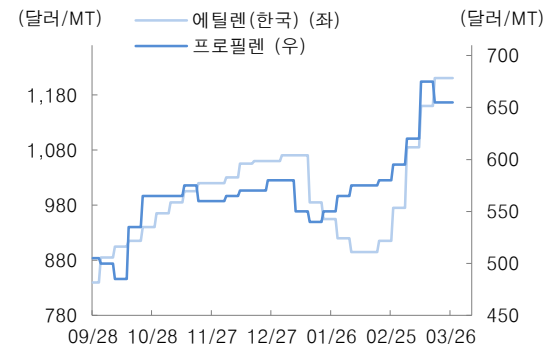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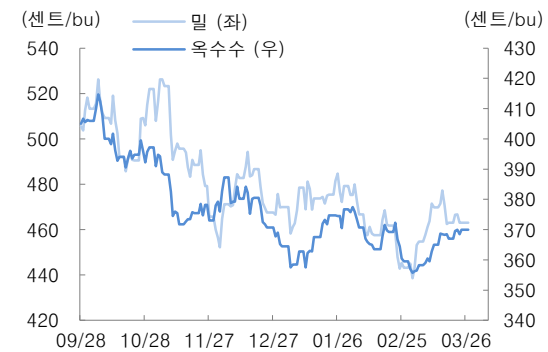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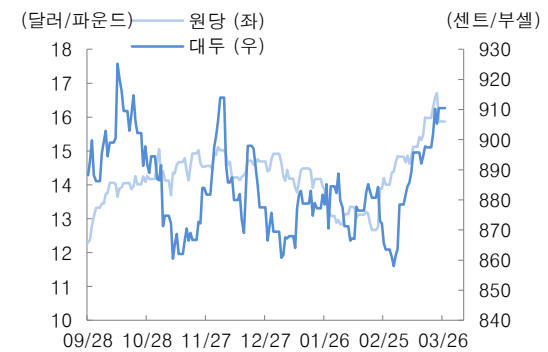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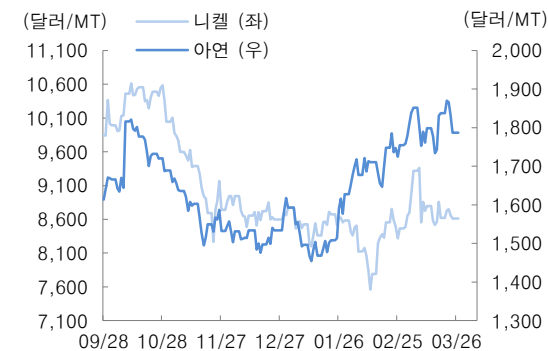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당,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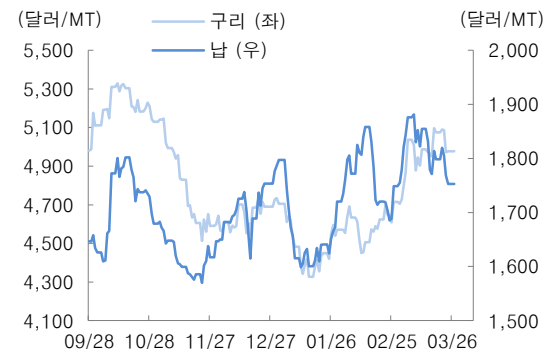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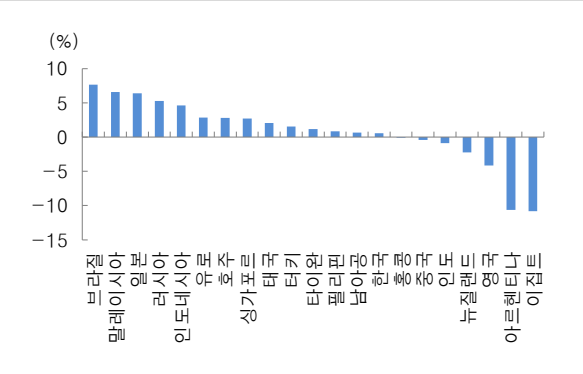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0원 오른 1169.20원에 장을 마감
- 25일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5bp 내린 1.495%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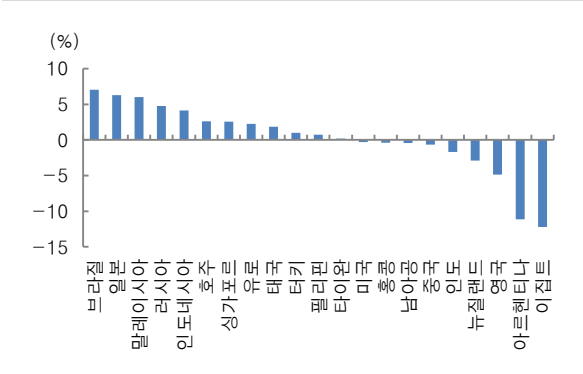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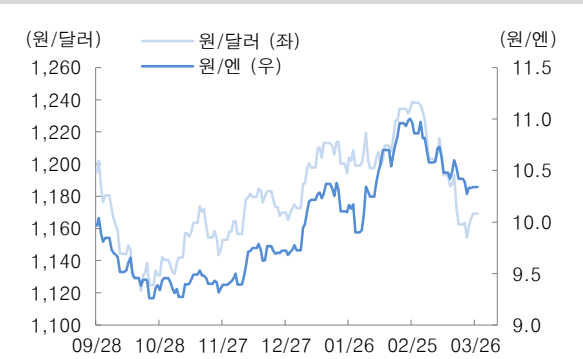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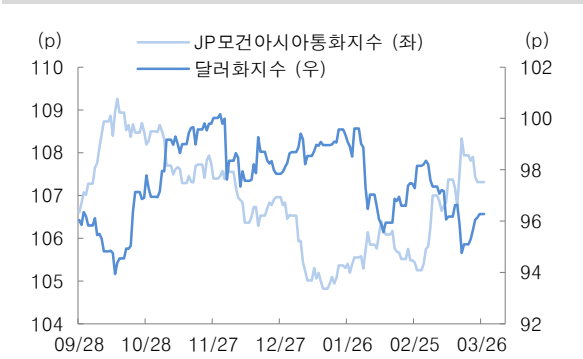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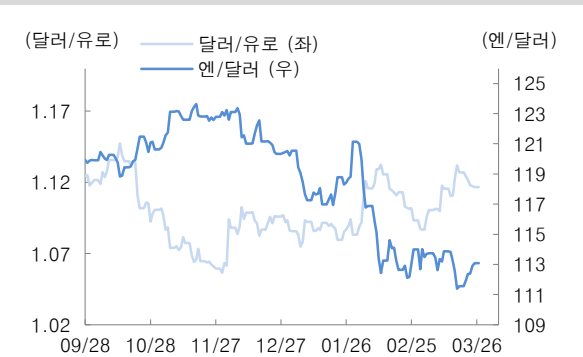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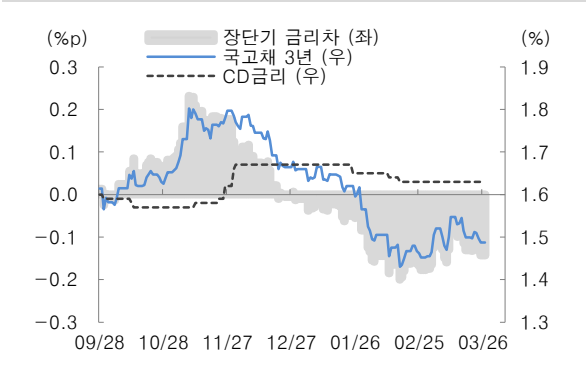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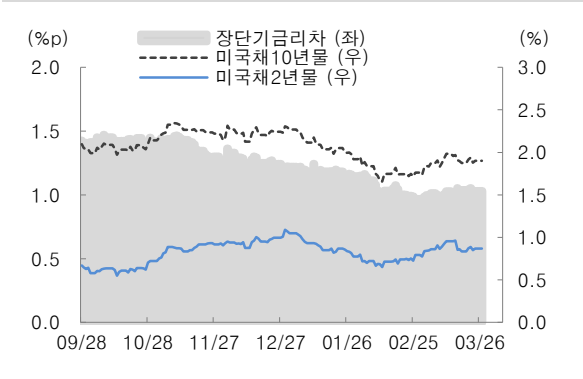
▶ 금리,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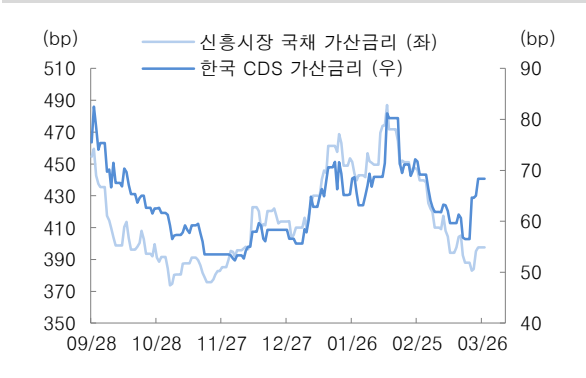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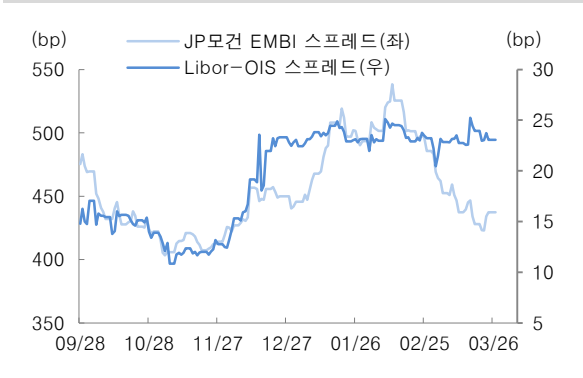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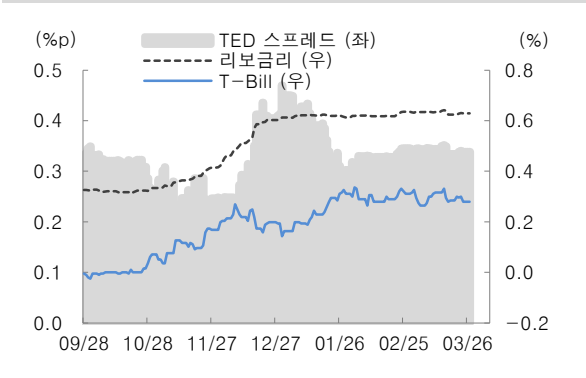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JP모건 EMBI 스프레드, Libor-OIS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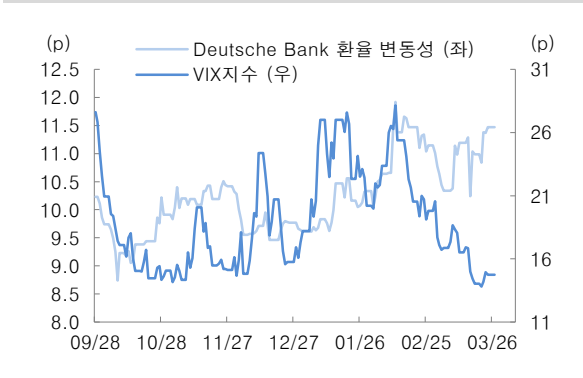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eutsche Bank 환율 변동성과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3/25	3/24	3/23	3/22	3/21	03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70.7	59.2	-43.6	-115.1	103.5	-1,109	-1,796
외국인	-42.4	45.5	11.5	136.0	135.3	3,457	755
기관계	40.9	-173.2	-45.1	-88.4	-313.0	-2,935	1,665
금융투자	108.8	75.6	-8.5	-26.1	-161.0	-390	529
보험	-22.1	-19.4	-18.1	-18.3	-13.2	-185	2,603
투신	-24.2	-65.6	-24.1	-64.1	-121.8	-1,694	-450
은행	-4.5	-6.5	-4.4	0.4	0.0	-35	-204
기타금융	-4.8	0.2	1.7	3.3	-7.6	-44	-71
연기금	16.0	18.1	38.8	15.2	19.8	112	243
사모펀드	-23.8	-173.8	-31.1	4.4	-36.2	-709	-895
국가지자체	-4.5	-1.8	0.5	-3.2	6.9	9	-90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NAVER	9.4	삼성전자우	19.0
LG 화학	7.7	SK 텔레콤	10.7
고려아연	7.4	삼성전기	7.8
한미약품	7.1	SK 이노베이션	7.5
부광약품	4.4	삼성생명	7.5
현대백화점	4.2	삼성중공업	6.8
한미사이언스	3.6	대우건설	6.3
LG 생명과학	3.5	현대차	5.2
엔씨소프트	3.1	LG 이노텍	5.2
이마트	3.0	삼성전자	5.2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한미약품	21.6	NAVER	18.0
롯데케미칼	17.4	삼성전자	14.0
LG 화학	15.9	SK 하이닉스	13.7
현대건설	13.8	LG 이노텍	12.2
삼성생명	13.5	LG 전자	10.4
KT	10.6	삼성물산	9.9
아모레퍼시픽	9.8	삼성에스디에스	8.6
LG 생명과학	9.8	CJ	7.3
아모레 G	9.6	고려아연	7.2
한미사이언스	8.4	호텔신라	6.6

코스닥시장(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M	1.9	카카오	8.6
코미팜	1.7	컴투스	3.4
휴온스	1.4	삼일기업공사	1.5
동국제약	1.3	메디톡스	1.4
한국토지신탁	1.3	디오	0.9
원익 IPS	1.2	제넥신	0.9
바이넥스	1.1	비아트론	0.8
에스엠	1.0	파라다이스	0.7
아모텍	0.8	에스에프에이	0.7
유니셀	0.7	슈퍼겐코리아	0.6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뉴트리바이오텍	3.1	원익 IPS	4.2
성광벤드	2.5	CJ E&M	3.6
휴온스	2.0	바이로메드	2.9
에스에이엠티	1.9	파라다이스	2.7
에스엠	1.8	메디톡스	2.3
셀트리온	1.7	바텍	1.5
인선이엔티	1.6	셀바이오텍	1.4
네오위즈게임즈	1.6	에스에프에이	1.2
디에이치피코리아	1.5	바이넥스	1.1
한국토지신탁	1.5	코오롱생명과학	1.1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NAVER	61.3	-4.5	삼성전자우	52.0	-0.4	현대차	47.6	-1.0	삼성생명	35.9	2.7
현대차	47.6	-1.0	삼성생명	35.9	2.7	고려아연	44.3	-2.5	한국항공우주	30.1	-4.2
고려아연	44.3	-2.5	한국항공우주	30.1	-4.2	LG 전자	34.2	-1.3	호텔신라	29.6	-0.7
LG 전자	34.2	-1.3	호텔신라	29.6	-0.7	한미약품	33.1	0.8	한전 KPS	28.9	-4.7
한미약품	33.1	0.8	한전 KPS	28.9	-4.7	LG 디스플레이	30.7	2.0	신한지주	27.2	-1.4
LG 디스플레이	30.7	2.0	신한지주	27.2	-1.4	LG 화학	27.4	3.0	삼성전자	26.3	1.7
LG 화학	27.4	3.0	삼성전자	26.3	1.7	현대백화점	25.1	4.2	삼성전기	16.8	-7.1
현대백화점	25.1	4.2	삼성전기	16.8	-7.1	한국전력	24.8	-1.3	KB 금융	13.3	-2.9
한국전력	24.8	-1.3	KB 금융	13.3	-2.9	엔씨소프트	19.7	-2.8	현대모비스	11.9	-0.8
엔씨소프트	19.7	-2.8	현대모비스	11.9	-0.8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현대차	57.9	-1.0	삼성전자	153.1	1.7	현대차	57.9	-1.0	삼성전자	153.1	1.7
기아차	49.4	0.8	NAVER	64.7	-4.5	기아차	49.4	0.8	NAVER	64.7	-4.5
삼성생명	47.4	2.7	고려아연	49.8	-2.5	삼성생명	47.4	2.7	고려아연	49.8	-2.5
LG 디스플레이	39.4	2.0	LG 전자	47.0	-1.3	LG 디스플레이	39.4	2.0	LG 전자	47.0	-1.3
현대건설	36.7	5.5	삼성물산	45.8	-1.7	현대건설	36.7	5.5	삼성물산	45.8	-1.7
한미약품	25.3	0.8	CJ	36.6	-3.9	한미약품	25.3	0.8	CJ	36.6	-3.9
KT	24.4	2.3	LG 이노텍	31.8	-5.3	KT	24.4	2.3	LG 이노텍	31.8	-5.3
현대모비스	23.2	-0.8	호텔신라	30.1	-0.7	현대모비스	23.2	-0.8	호텔신라	30.1	-0.7
LG 화학	22.2	3.0	신세계	26.6	0.7	LG 화학	22.2	3.0	신세계	26.6	0.7
삼성엔지니어링	21.8	14.4	LIG 넥스원	25.3	-7.7	삼성엔지니어링	21.8	14.4	LIG 넥스원	25.3	-7.7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단위:백만달러)

구분	3/25	3/24	3/23	3/22	3/21	03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39.4	36.0	5.7	148.8	106.2	3,083	713
대만	-117.0	84.5	87.8	103.9	156.9	4,205	4,064
인도	--	--	--	169.9	222.6	2,583	-288
태국	-49.6	16.2	12.4	15.8	-2.8	426	220
인도네시아	--	-9.3	25.1	-20.5	27.9	240	378
필리핀	--	--	1.8	-2.2	23.1	198	71
베트남	6.3	-1.2	2.9	1.5	-0.9	26	-44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스탁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스탁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